

사람이 전에 악을 행하였다더라도 뒤에 그치고 범하지 않으면 이는 세상을 밝게 비추리니, 마치 달로 인해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으리라. 법구경·방일품 194절

경주캠 진입로 확장공사 확정

70억 들여 오는 2001년 완공 ... 교통 체증 해소 기대



그동안 경주캠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진입로의 확장공사가 확정돼 교통 체증 해소가 기대된다.

경주캠으로 들어서는 주요 진입로인 경대교에서 정문에 이르는 8백여미터의 도로구간이 대규모 확장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1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주시의 계획은 기존의 경대교(330미터)의 폭 10여미터 안팎 확장공사와 경대교부터 정문앞에 이르는 연장도로(길이440미터, 폭 10여미터)를 폭20여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번 공사에 드는 총 비용은 68억원이다. 그동안 경대교 주변과 학교정문의 교통난에 대해 본교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경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 재정난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최근 몇 년사

이 급격히 증가된 차량으로 인해 현재 출·퇴근시간 정문진입로는 교직원, 일반인은 물론 택시에 학생 자가 차량까지 몰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다. 터미널, 성건동 동대사거리, 동천동 등 세 방면에서 2차선인 경대교로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경대교구간의 병목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성건동에서 자취하는 한 학생은 "수업에 늦어 택시를 탈 경우, 기본 요금이면 충분하는데 2배가 넘을 때도 있어 차라리 뛰어가게 여러 면에서 절약"이라고 말한다. 또한 학교의 한 관계자는 "비좁은 도로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경대교 신호등에서 교문까지 정체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라고 말해 교통난의 위험수위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심각한 교통난을 감안해 지난 7월초 이원식 경주시장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경대교 및 교문앞 연장도로까지의 확장을 안건으로 상정, 지방교부세를 요청한 결과, 7월 24일 정부로부터 8억원을 지원 받았다. 나머지 비용과 관련해 도시개발계 정복고계장은 "70여억원의 비용은 현재로선 중앙정부와 시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며 동국대 재단과의 논의를 통해 일부분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말 송석구 총장은 이원식 경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본교의 교통체증 상황을 직접 설명, 이번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확장공사는 오는 14일 용역설계 입찰을 접수받아 올해 말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학교 주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흥무초등학교 일대의 북문로, 금장 진입로도 2001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경대교에서 정문에 이르는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dongguk.ac.kr**

오복원 컨스님 초빙법회 개최 '현대인의 삶...' 주제로

오는 14일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동국학원이사장 오복원컨스님을 초빙해 개강법회를 진행한다. 이번 개강법회는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지표'라는 주제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에게 지침이 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법회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비롯해 학외에서도 관심있는 사 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지면안내

- 모집단위광역화 좌담회 6면
- 최근의 '조직사건' 정리 4면
-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5면
- 대학문화정체성 찾기 9면

보리소

'미린다 왕문경'의 교훈

윤 청 광(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기원전 150년경, 서북부 인도를 지배했던 그리스왕 메난드로스를 인도인들은 미린다왕이라 불렀다. 이 메난드로스왕은 불교경전에 정통한 나이가세나 학승을 불러 답문을 나누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셈인데, 불교교리를 비롯, 여러 가지 인생문제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바로 이 대화를 기록한 것이 '미린다 왕문경'.

이 경은 서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 "오라, 그대들이여, 와서 그대의 머리를 빗나게 하고, 그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의심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이들 미묘한 질문과 해답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이 경을 읽으면 과연 토론이나 대답이나 논쟁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극명하게 배울 수 있고, 토론이나 대답의 맛과 멋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메난드로스왕은 스님들이 왜 수행을 하는냐고 묻는다. 이에 나아가세나 스님은 "이 괴로운 사라고, 저 괴로운 생가지 말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대답했다. 왕이 또 물었다. "아직 생가지 않은 미래의 괴로운 때문에 수행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닙니까?"

이에 나아가세나 스님의 되물음이 이어진다. "대왕은 적국과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참호를 파고, 성문을 닫고, 망루를 세우고, 양곡을 마련합니까? 대왕은 목마른 후에야 우물을 파고, 저수지를 막습니까? 대왕은 배고픈 후에야 밥을 갈고, 씨를 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일은 미리부터 준비합니다."

한토막의 대화만을 줄여서 옮겨보았지만, 이 '미린다 왕문경'은 총행무진 인생관사를 묻고 답하며 명쾌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인생에 대해, 진로에 대해, 가장 번민이 많은 시절, 종교에 관계없이 꼭 한번 읽어두어야 할 책이 바로 '미린다 왕문경'이 아닐까?

부속기관장 부분인사 단행

본교는 지난 1일자로 부속기관장 부분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경영연구원장=황용호(회계학) △일본학 연구소장=공로명(아시아지역학)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 소장=강태원(물리학) △밀리미터파신기술 연구센터 소장=이진구(전자공학) △경주캠 신라문화 연구소장=최효식(국사학) △동대신문사 부주관(동국포스트)=박윤희(영어영문학)

'과학동국' 힘차게 도약

SRC·ERC 개소식 진행 ... "단계적 지원 뒤따라야"

연구 중심 대학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는 SRC(양자기능 반도체 연구센터), ERC(밀리미터파신기술 연구센터) 개소식이 지난 8일 교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이 과학의 으뜸으로 불려지듯 앞으로 한국 과학의 으뜸은 동국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존의 반도체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패거리를 이루어낼 양자기능 반도체 연구센터

(소장=강태원·물리학)는 본교 8명의 연구원을 비롯해 KAIST, 한양대, 서울대 등에서 배출된 연구원 총 23명이 연구에 참여해 반도체 양자구조 및 양자기능 신물질·소자물리 등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소자의 창출, 인공두뇌를 위한 양자컴퓨터 방 향제시 및 차세대 첨단 반도체 연구기술 우위권 확보 등이 기대된다. 또한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소장=이진구·전자공학)는 미래 무선통신관련 첨단기술의

확보로 국가경쟁력제고, 첨단 무선통신 장비의 개발, 실무중심의 우수한 공학자 배출, 밀리미터파 관련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이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오복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이번 개소식이 21세기 과학동국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으며 송석구 총장은 "앞으로 9년간 꾸준한 지원을 통해 한국의 과학발전과 과학동국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다른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계획이 중간에 끝



SRC·ERC 개소식이 지난 8일 정보문화관에서 열린 이공계분야의 특화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나 성과를 올리기도 전에 폐기되곤 했는데 앞으로 과학동국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단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본교는 본격적으로 산·학·연 협동체제를 통한 연구중심 대학과 이공계 분

야 집중육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수 인력 유치 및 공간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영인 기자 yangkyang@cakra.dongguk.ac.kr**



고향가는 길... 올해도 지방 학생들의 한가위 귀향길을 돕기 위해 학복위와 생협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귀향버스에 몸을 실으려는 학생들이 서울캠 중도앞에서 표를 예매하고 있다. **양영인 기자 yangkyang@cakra.dongguk.ac.kr**

교수회 정기총회 15·16일 양일간 개최

총회장 선출은 향후 열릴 합동대의원 총회서

지난 5월부터 서울의 심익섭(행정학)교수와 경주의 함경수(컴퓨터공학) 교수의 공동직무대행체제로 이어져온 교수회가 오는 15일과 16일 각각 캠퍼스별 교수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교수회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진행되는 경주캠의 총회는 이날 오전부터 도서관 지하 1층 교수회의실에서의 회장선거와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의 본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캠 총회는 16일 오후 4시 개교90주년 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수회 총회장은 양캠의 교수회장단 선출이후 합동대의원총회를 조만간 개최해 교수회 총회장을 선출한다. 양캠의 총회에서는 각 캠의 회장선출이외에도 사립학교법 개악과 BK21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총회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익섭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교육전반의 정책에 대해 양캠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교육관계법 재개정과 교육7적 퇴진을 위한 1백만서명운동을 학내에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익섭 교수는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해 교수들의 구심점이 되는 교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총회의 의의를 밝혔다.

송석구 총장 동양대 방문 이공계 교류확대 방안 모색

오복원 이사장과 송석구(철학)총장은 오는 16일 교류확대 논의를 위해 자매대학인 일본동양대학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96년 협정체결이후 최초방문으로 이전까지의 불교대·인문계열부문의 교류외에도 이공계부문의 교류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동양대학은 이공계열부문의 명성이 높은 곳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면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수습기자 모집안내

- 모집인원: 서울 캠퍼스 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취재·사진·민화 기자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우증)
- 원서미감: 9월 16일(목) 오후 5시까지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9월 16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됨

쏘라!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동대신문사에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발전기금모금운동 활발

곽미자 동문, 국제정보대학원, 운문사 등 꾸준한 후원

본교 발전기금으로 곽미자 동문과 국제정보대학원, 운문사 등에서 각각 3천만원, 5천만원, 2천7백여만원을 기탁했다.

국제정보대학원은 지난해 7월 1기 수료생들과 지난 2월 2기 수료생들이 각각 3천만원씩 기탁한데 이어, 지난 달 24일 제3기 수료생들이 본교 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97년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정을 수료한 곽미자(대의협력처 명예위원) 동문은 지난 6일 발전기금 3천만원을 약정했다. 곽동문은 지난해 3월 금모기 사업을 진행할 때도 금 34돈을 전달하고, 동국사랑 저금통갯기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그동안 약 1천여 만원을 꾸준히 기탁해 왔다.

또한, 경상북도 운문사의 명성 스님과 신도들이 지난 7일 불교종합병원기금으로 2천7백68여만원을 전달했다. 운문사는 96년 경주에서 열린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에서도 1천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종합전시공간 '갤러리 동국' 개관

학내외 다양한 전시회 마련

지난 6일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지하 1층에 '갤러리 동국(관장=오원배·미술학)'이 문을 열었다.

이는 그동안 갤러리의 명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전시관을 새로운 인터리어로 바꿔 종합전시 공간을 만든 것으로 수익금 중 관리비를 뺀 나머지는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개관에 맞추어 미술학과 교수와 학생들 작품으로 개관 전시회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영방(미술학) 예술대 학장은 "갤러리 동국은 본교가 문화·예술 대학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총여, '독립' 공모전 수상작 발표

황윤정양의 '나에게로의 독립' 대상 수상

총여학생회(회장=서신경화·철학4)는 오는 16일 오후 7시 제 1회 '독립'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한다.

가부장제로부터 경제적 독립까지 '독립'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자기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사랑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나에게로의 독립'을 쓴 황윤정(영문1)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시상식 이후에는 이대일 페미니스트 카페 '마고' 경영자인 정경애씨가 '경제적 독립과 경제공동체'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졸준위 총운영위원회 개칭

감사결과·사업진행 보고 등 의견개진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노승수·화공4, 이하 졸준위)는 내일(14일) 오후 5시 중앙강당에서 총운영위원회를 개회한다.

총운영위는 대의원인 각과 4학년 대표들이 참석해 △졸준위 1학기 감사결과 보고 △2학기 사업진행 보고 △열람제활용일정 및 가관집 확인 △회칙개정안건 처리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노승수 위원장은 "열람제활용일정 나왔으니, 지난 6월 졸업앨범을 촬영한 학우들은 이번주 중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졸준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동국관 L401과 L501에서 '모의 토익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본교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3천원이다. 오늘(13일)부터 졸준위 사무실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앞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동연, 전동대회서 동연제 등 논의

13일부터는 문화행사 진행

동아리연합회(회장=박종근·영문(야)4, 이하 동연)는 지난 9일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열고 방중 사업 및 하반기 사업을 인준했다.

전체 61개 동아리 중 37개 동아리 대표가 참석해 성사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동연 공약사항인 8대요구안의 경과보고와 10월에 개최되는 '열린 동연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8대요구안 가운데 △동아리지역 컴퓨터 랜(LAN)설치는 추석 전에 완료하기로 학교당국이 약속하였고, △전시·공연공간 확보 문제는 학생회관 2층 연회원과 5층을 각각 전시·공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 등 설치공사를 이번 주에 시작한다.

또한 특별등록심사를 신청해 특별안건으로 상정된 기독교 동아리 인준문제는 학내 대중화가 부족하고 종교 다름으로 비하 될 것을 우려, 논의수준에 그쳤다.

한편, 동연은 오늘(13일)부터 3일간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를 주제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에는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앞에서 지난 3일 진행된 좌담회와 동연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화 문화에 관한 거리마당을 비롯해 △14일에는 강연 및 토론회가 오후 6시 학관 2층 연회원에서 △15일 오후 4시와 6시 학관 5층 소극장과 오후 8시 학관 옆 계단에서 본교 영화동아리 '디답돌'과 연극영상학부 소모임 '전진세발'이 제작한 독립영화 5편을 상영한다.

모집단위 광역화 학내 의견 엇갈려

학교, "학생선택권 보장위해 필요" ... 총학, "학부제 문제점만 반복"

전국 각 대학의 2000학년도 모집 요강이 9월중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본교 또한 모집단위 광역화를 중심으로 한 모집안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본교는 지난 4월 이미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현재는 교육부의 최종 확정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이하 총학)는 전반적인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집단위 광역화 계획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00학년도 모집단위 광역화의 큰 틀을 살펴보면 경제학과와 식품공학과 등 6개과의 단과대 이전과

함께 사범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는 모집의 단위를 각 단과대학별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은 "모집단위 광역화는 현재 우리대학사학 전반의 분위기가"라고 전제한 뒤,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모집단위는 광역화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집단위 광역화 시행의 후속실무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제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과과정의 개편이나 교양과정의 강화 등을 실행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총학은 지난 10일 열린 '상반기 학자 합의안 이행, 일방적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 자주적 이사장 선출을 위한 민족통국 1차 결의대회'를 통해 모집단위 광역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백 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기초학문의 붕괴와 전공과목의 부실화가 현실화된 학부제의 폐해를 해결하지 않고서 시행되는 광역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부터 명진관 앞에서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오종진(사) 위원장은 "학문과 각 단과대



지난 10일 열린 집회에서 학생들이 모집단위광역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학내에 반대한다"며 "공개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주장 했다. 특히 총학은 모집요강안이 확정

되기 이전에 전면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2개 과목 선정

14개 대학 취득학점 상호 인정

본교가 정보통신 연구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지원 사업에 '정보보호이론', 'JAVA 프로그래밍' 등 2개 교과목이 선정돼 각각 지원금 5천만원을 받게 예정이다.

본교를 비롯해 이번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지원사업의 6개 분야 23개 교과목에 선정된 14개 대학에서는 대학간의 취득학점이 상호 인정되며 가상수업실적은 담당교수의 연구 성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지난 9일 상록원 3층에서 가상대학 운영위원회가 열려 수업 전면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이종욱 정보관리실장, 신재호 교무처장, 정재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된 안건은 △수강 인원 제한 △출석 및 성적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학생의 질문에 대한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 방법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정보관리처

장은 "여기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실천에 옮겨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컴퓨터 73대·고속 프린터 3대를 갖춘 정보문화관 공용실

습실이 오늘(13일)부터 개방되어 그 동안 BSC에서만 실시하던 고속프린트서비스를 확대하게 돼 종전 한때당 75원이던 가격이 50원으로 내리게 된다.



모교방문의 날 ... 모교와 교직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형성을 위한 '동문 교직원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총동창회 류주형 수석부회장과 임덕규 부회장, 교직원동문인 왕윤순 송옥여 교장 등 교장 30여명, 교감 20여명을 포함한 모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강당과 상록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행평가의 이해 및 실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이수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실장은 "대입제도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수행평가를 통한 토론문화 활성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배양과 체험학습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성된 교직원동문회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왕윤순(송곡여 교장) △수석부회장-우하수(동대부고 교장) △부회장-박정원(덕수정보산업고 교장), 추교정(강일중 교장), 이인산(전 광문고 교장) △감사-서종일(남서울중 교장)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정	정
지난 1276호 2면 총대감사 결과 내용중 불교대의 주의결과는 취소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2000학년도 전기 대학원 특별전형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계명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원문(영주), 시, 미술사, 철, 국인문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복원,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농업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시, 미술사, 철, 국인문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 동, 임, 응용생물, 가정, 조경(영주), 가평	수, 물리, 화, 통계, 동, 임, 응용생물, 가정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산(영주), 기계공, 안전관리(영주), 정보통신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의약계	한의(영주), 의(영주)	한의(영주), 의(영주)
한·미·영계	말티미디어(연극영화, 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 특성화프로그램 학과간 교육연계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영상정보통신	디지털영상제작 전공	연극영화, 정보관리, 전자공, 컴퓨터공	연계학과
특성화프로그램	영상정보처리 전공	전기공, 정보통신공, 반도체학과	
- 모집학과 및 인원 : 각 학과별 약간명 가.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하다. 나. (경주)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다. 석사과정 화, 응용생물, 가정학과는 서울, 경주캠퍼스 공동개설된 학과임. 라. 석, 박사과정 공히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전학과 응시가능(한외, 의과과는 제외)
- 지원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정규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 전형방법 : 서류심사와 기술시험
- 지원서 교부 : 99. 9. 15(수) ~ 10. 1(금)
- 지원서 접수 : 99. 9. 29(수) ~ 10. 1(금) 지원서는 09:00~17:00까지 본 대학원 교학과에서 교부 및 접수함. (단,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17시이후는 본교 학습관 수위실에서 교부함)
- 전형일시 : 99. 10. 8(금) 10:00
- 입시안내 인터넷 주소 : http://www.dongguk.ac.kr 내 대학원홈페이지 / E-mail : bskkk@cakra.dongguk.ac.kr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 2260-3094~5, Fax 2260-3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2학기 예비군 교육훈련소집

- 교육훈련대상자 가. 1학기 일반기부교육 불참자 나. 2학기 복학 및 신입생 예비군중 교육미완료자
- 교육일정 : 99. 9. 21(화)
- 교육시간 : 2~8시간(예비군연대본부에서 개인별 교육시간 확인후 통지서 수령)
- 교육장소 : 노고산 종로·중구훈련장(219연대) ※구과발 전철역에서 구과발 방항으로 300M지점에 서블버스대기
- 복합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
- 휴대품 :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면허증 ※유의사항 가. 교육대상자는 예비군 연대본부에서 소집통지서를 필히 수령(9. 13~9. 17) 나. 08:00시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불가 (위병소 통제) 다. 복잡불량자 입소불가 (예비군연대본부 연락처:2260-3073~5)

서울캠 예비군연대

하반기 취업특강

- 2000년 취업예정자들의 취업활성화와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99년 하반기 취업특강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 99. 9. 17(금) 14:00 - 16:00
 - 장소 : 본관 중앙강
 - 강사 : (주)엘리트뱅크 정재성 전무
 - 내용 : 99년 하반기 채용전망과 지원서 작성 및 면접특강
 - 주최 : 학생처 취업지원팀(2260-3055)
 - 기념품 배부 : 취업자료화일 및 이력서 용지 배부
- 서울캠 학생처**

교육실습 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

- 2000학년도 교육실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육실습 신청서 및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들은 기한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자 : 2000년 8월 졸업 및 2001년 2월 졸업예정 인 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실습 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기간 : 99. 10. 6(수)~10. 8(금)
 - 실습기간 : 2000년 4. 3(월)~4. 29(토) 4주간
 - 제출서류 : 교육실습 신청서 및 동의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
 - 교육실습은 전반기(4월중)에만 실시하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실습신청서 및 동의서를 접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캠 사범대학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주간 심규박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미경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 ID dgu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온방골의 모습이 달라진다”

교내 신·증축 공사 대거 진행중

온방골이 달라지고 있다. 경주캠퍼스에서는 현재 본관 부지공사에 비롯해 10여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균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본관 지하 1층, 지상 4층, 3천 2백 66평(10,777.8㎡) 규모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현재 경주시, 중소기업청과 본교로부터 지금까지 3억 4천8백만원의 공공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창업보육센터는 진흥관 옆 지상 2층 건물에 333평 규모로 현재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완공예정일 앞두고 지난주부터 입주자를 모집, 집수를 받고 있으며, 이용 사무실수는 20개, 관리실 1개 등이다.

석림빌 여학생 생활관 옆 지상 3층건물, 3백 66.3여평수에 방수는 26개, 그밖에 도서실, 교수실, 법당등을 갖출 예정이다. 총 공사비 12억 가운데 6억원을 부담하는 석림빌은 최근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을 비롯, 현재 4억5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공사진척도는 현재 70% 정도이며, 석림빌측은 “앞으로 불교대학원의 설립에 따른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산관 증축 5층에 건평 3백

3평으로 8개 강의실을 증축하고 있으며, 공간 배치는 공사가 마무리되며 오는 12월 준공전에 할 예정이다.

미술학과 조소실 10여년 동안 이용해오던 조립식 실습실을 철거하고 총 15억원의 비용을 들인 지상 2층 콘크리트 구조로 △1층= 연구실 1개, 야외실습실 △2층= 강의실 4개, 연구실 1개 등 4백 16평(1,373.7㎡)의 규모이다. 공사는 지난 6월 19일 시작해 11월 준공 완공예정이며 현재 33.8%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4일에 시작한 자연과 **자연과학관 증축** 학관 5층 증축은 2백 40여평의 규모로 강의실 5개, 연구실 3개 등이며 오는 12월 준공에 완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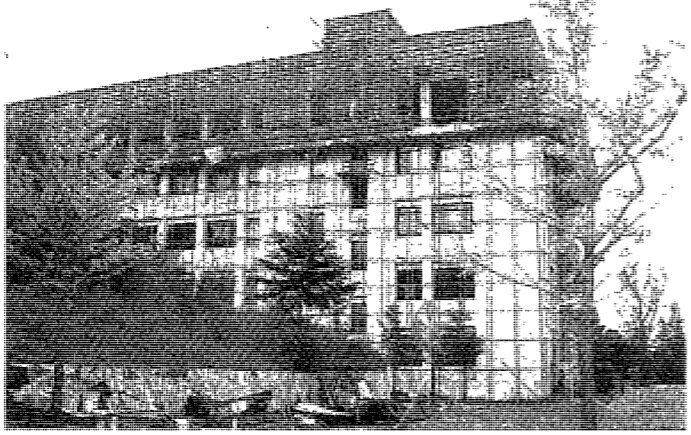
이밖에도 정각원수위실, 금장생

활관 남동과 여동사이에 생활관 부지가 현재 신축공사중에 있으며, 원효관 증축, 부속유치원 옹벽 보수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경주캠퍼스에서는 유래없이 많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백옥석 사무처장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교내 환경의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천년을 맞이해 시설확충은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이 아니라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진정한 지역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우수한 시설을 갖추는 작업에 여러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상)dg19913191@mail.dongguk.ac.kr



12월 완공을 앞둔 자연대 강의실 증축공사 모습

총여 구룡포서 여성캠프 개최

총여학생회(회장=전선희·국문4)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구룡포에서 여성캠프를 개최 예정이다.

캠프일정을 보면 17일 △매체비평 강연 △조별토론 △자유로운 표현, 18일 △성찰강화회, 피임법 △영양토론 △각과의 특성 표현, 19일 △조별평가, 진채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가정교육, 불교이행, 국악, 간호학과 각 학회장들과 일반 여학생들 3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비는 5천원이며, 오는 16일까지 총여학생회 사무실에서 신청받는다

의료원 실적보고서 발간

의료원(원장=조재호)은 지난 8일 '100대 개학과제 추진결과 보고서'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난 95년부터 4년여간의 의료원 실적과 3S(시스템의 개혁, 서비스의 개선, 고객만족의 실현)운동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실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조정 △야점구내의 적정화 △진료 교수 개인별 진료실적 분석 △진료교육 및 결의 대회 △진료시설의 획기적 개선 등이다.

취업진로카드 작성교육 실시

취업지원팀(팀장=김용기)은 지난 9일 99학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진로카드와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각 대학 교과과목을 통해 배부된 취업진로카드는 외부 기업 추천 의뢰용으로 쓰일 예정이며, 교과과 1부, 취업지원팀 1부로 나눠 관리한다. 또한, 이력서 작성법을 취업지원팀에서 직접 안내해 주고 있으며, 2명 5백원의 '취업정보책자'를 제작해 현재 각 대학 교과과에서 학생들에게 배부중이다.

신라문화 논문집 발간

신라문화연구소(소장=김갑주·국사학)는 지난 달 29일 김갑주 소장 정년 기념 '신라문화 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의 내용을 보면 △진평왕대의 왕권강화와 재택신앙 △신라시대 경문왕의 불교정책과 사회정책 △신라시대 경문왕의 불교정책 △경주 북부지역 불교고 등이며, 현재 1천부 가량의 논문집이 전국 각 대학 및 박물관, 도서관 등에 배부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갑주 소장은 “나의 정년 기념 논문집 발간과 학술회의 개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학기 우수강의 계획서 선정

계획서 선정

학사지원실(실장=차선구)은 99학년도 2학기 우수강의 계획서 교수를 선발했다.

수상자 및 교과목명을 살펴보면 △인문과학부 김신재(국사학)-한국정치제도사 △자연과학부 심규박(정보통계학)-수치해석 △사회과학부 박병식(행정학)-도시행정론 △예체능, 의학부 이덕성(사회체육학)-체육시설 및 관리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우수작 1편당 50만원의 연구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정점수가 교원업적에 반영된다.

학생선발실

학교홍보 영상CD 제작

학생선발실(실장=김종진)은 2천학년도 신입생 입시 홍보를 위해 학교 홍보영상 CD를 제작한다.

약 1천여부를 제작할 예정인 홍보영상 CD는 캠퍼스 안내를 중심으로 학교홍보 내용을 영상으로 담는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입시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해주고 있으며, 홍보 책자를 제작해 각 지역 고등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기업체 및 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취업자 수시모집이 오는 1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으니 착오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기술 기능사 과정

수료식 가제

사회문화교육원(원장=임배근·경제학)은 오는 14일 오후 5시 Y(영산관)202에서 '조경기술 기능사'과정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 △원장축사 △공로자 수상 △수료증 수여 △지도교수 격려사 △폐회사 순서로 치러지며 수료자는 총 1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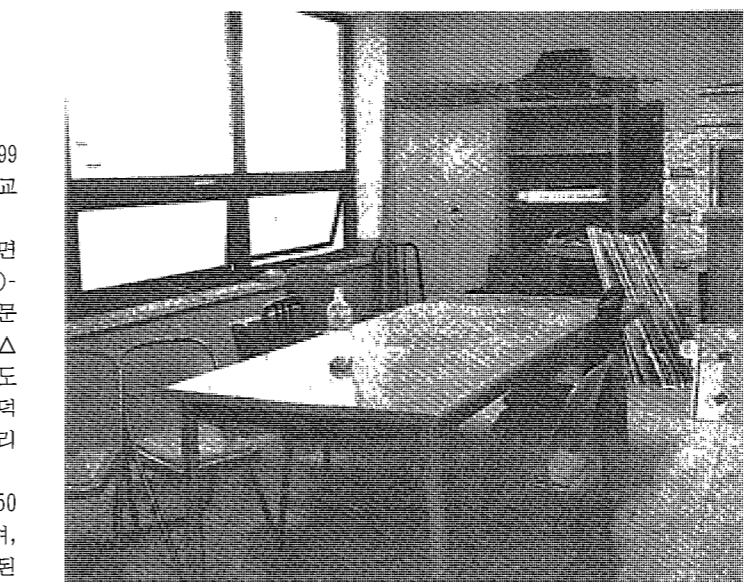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임배근 원장은 “이번에 교육받은 것을 기반으로 좀더 노력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전문 조경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시험 합격자 발표

학사지원실(실장=차선구)은 지난 4일 실시된 99학년도 2학기 특별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시험과목과 합격자는 △실용영어 2-34명 △영어회화2-42명 △컴퓨터 활용과 실습2-2명 등이다. 합격자는 해당과목목을 이수하지 않고, A+, A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휴·복학 중간결과를 휴학의 경우 5백 16명, 복학의 경우 5백 10명이 신청했으며, 조기졸업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접수 받는다.



작심 3일... 지난 8일 개관후 2번째로 열린 중우회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3일후 연기된 회의는 16명의 위원중 위원장 및 총여 회장만이 참석했다.

김미영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오는 16일 모의토익 실시

취업지원팀(팀장=김용기)은 오는 16일 오후 5시 A(원효관)308, 309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의TOEIC 및 JPT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시험 후 A309 강의실에서 YEM(영어영사) 김호정 지사장,

교육대체실 영화상영 시간 변경

도서관(관장=이석장·영어영문학) 교육대체실 영화상영시간이 기존 월·목·금 오후 3시부터 월·목 오후 3시, 금 오전 12시로 변경됐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매주 3회씩 상영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3·16·17

동연, 신규 동아리 등록 및 대표자 회의개최

동아리연합회(회장=이건상·회계4)는 오는 15일까지 신규 동아리 등록을 받는다.

구비서류는 △20인 이상의 회원 명부 1부 △동아리연합회 가입원서 1부 △동아리 회칙 1부 △해당연도 사업보고서 1부 △동아리 설립목적에 대한 설명서 등이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 6시 동아리 연합실에서는 △동아리 등록상장 △거리문화제 △체육대회 등의 안전을 위한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주캠 불자 교수회장 선출

99학년도 불자 교수회 회장으로 이석장(영문학, 사진)교수가 선출됐다. 총무는 김세훈(불교아동학)교수 겸사는 우성기(법학)교수가 선 임됐다.

신도독인(?)

“...요즘 남의 글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글을 쓰는 학생이 있다고. 알아본즉, J일보의 본교 명예기자인 S씨가 본사 기자의 기사를 J일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했다는 것. '어디에서 발췌'라는 말만마디없이 자신의 기사인양 공중전과에 글을 띄우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가 아닐런지. 이에 본 회장부대자 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남의 기사에 이름만 바꿔쓰면 내 기사!'”

한전무대

사기꾼

“...TIME이 없어...TIME사세요!?” 요즈음 온방골 도서관 지하 한 모퉁이에서 총화회를 사칭한 이방인들의 출현으로 순진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알아보니, 학생들이 한창 불발 심사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접근한 이들이 총화의 이름을 앞세워 'TIME' 영어 시사지 구독신청을 받았다는데.

이를 본 모 시사지 사기꾼 왈 “앞서가는 사기꾼만이 학생을 사로잡습니다!?”

불순물(?)

“...학내 화장실 세면기와 변기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원효관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변기를 닦던 걸레를 세면기에 빠는 현장을 모 교수님이 목격했다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세면기에 불순물(?)이 묻어있다는 상상에 더 이상 세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회장부대자 왈 “결레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싶다고 하니 행주와 같이질 수 없지!”

무대보

“...모집단위 공역화와 학생복지는 반비례!?” 좋은 강의실, 강의수가 부족해 물리는 학생들, 이로 인해 우수한 분위기, 더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강의실, 게다가 썬더조차 사라져 가는 목욕탕.

이렇듯 학생들의 불만지수는 높아만 지는데 학교는 이를 시정하는 기미도 없이 모집단위공역화라 하여 학생수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으니.

이에 본 회장부대자 왈, “나랏말싸미 꾀어 달아, 대책을 먼저 생각해라 했으니...!”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모집

본센터에서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촉진을 위해 벤처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 1. 입주신청자격**
 - 관련법령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또는 확인가능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및 생물산업 등 새분야의 창업 1년 이내인 기업
 - 나. 위 세 분야의 예비창업자(본 대학 교수·대학(원)생 포함)
 - 기타 본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상품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예정인 창업 1년이내의 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 2. 입주개요**
 - 입주처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
 - 입주예정일 : 1999년 11월 1일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계약에 의하여 1년 연장 가능)
 - 3. 지원내용**
 - 입주공간 및 공용통신라인, 전산망 제공
 - 공용장비 및 대학보유장비 제공
 - 경영·기술지도 및 컨설팅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4. 입주자 부담금**
 - 보증금 : 평당 10만원
 - 월임대료 : 평당 5만원
 - 관리비 : 실비기준 공공요금 및 정비사용료
 - 입주업체 요청에 의한 경영·기술지원 분담금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벤처창업보육센터(우편접수 가능), 전화 : 0561-770-2472
 - 접수기간 : 1999년 9월 1일(수)~1999년 9월 30일(목)
- *입주신청서 양식은 vbi.dongguk.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입주신청서 파일이 저장된 디스켓 1개를 제출하여야 함
- *본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검색하기 바람(홈페이지는 9월 6일 이후 검색 가능)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

이력서 작성안내

- 1. 이력서 작성법**
 - 가. 연락처 기재 : 이력서 우송상단에 직접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하며, 이력서상 주소와 현 거주지가 틀릴 경우는 직접 연락이 가능한 긴급연락처를 밝혀둔다.
 - 나. 호적관계 : '호주와의 관계'란은 호주쪽에서 본 관계를 나타내야 하므로父, 母가 아니라 長男, 次男, 長女, 次女등으로 기재
 - 다. 학력관계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부터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학력 사이의 해당기간에 기재한다.
 - 라. 자격사항 : 각종 국가공인자격증이나 면허증 발급사항을 기재하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비공인 자격증도 반드시 기재한다.
 - 마. 특기사항 : 외국어능력정도,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능력 사항을 기재하며, 특히 외국어실력과 관련이 있는 경력(영어회화, TOEIC, TOEFL, G-TEFL, JPT, HSK등)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사항은 반드시 기재한다.
 - 바. 수상내역 및 기타사항 :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용한 부분이라도 교내, 외 행사나 각종 대회에 수상한 경력(교내 장학금 수혜를 기재해도 무방)을 적는다. 또한 해외연수, 아르바이트 경험, 교내외 봉사 활동, 교내동아리 활동을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2. 이력서 작성요령**
 - 가. 간간, 명료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읽는 사람에게 관심과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솔직하게 작성한다.
 - 나. 한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확하게 기입하며, 이력서는 자필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PC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다. 사진은 이력서 규격에 맞는 정장차림의 컬러사진을 부착(사진 뒷면을 벗기지 말고)한다. 또한 명함, 반명함판 사진을 항상 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여러종의 이력서를 항상 준비해야하며 이력서 제출은 구멍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출해야 한다. 입사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순으로 철하여 가능하면 대봉투에 넣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등기 우송을 한다.

경주캠 학생처

99 추석 귀향단 차량지원

- 1. 행사목적**
 - (1) 한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타지역 학우들의 편안한 귀성을 도모
 - (2)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 (3) 본교와 연관있는 지역 우수 업체에서 학생들의 귀향차량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학생, 지역업체간의 유대강화 도모.
- 2. 행사일시** : 1999년 9월 22일 오후 2시
- 3. 출발장소** : 동국대학교 백상탑 앞.
- 4. 노선 (편도)**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비	고
경	주	서울	직행	서	울				4대	
경	주	오산, 수원, 안산		인	천				1대	
경	주	전주, 순천		광	주				1대	
경	주	울진, 삼척, 동해		강	릉				1대	
- 5. 대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 6. 인원** : 선착순 315명
- 7. 교통비** : 전구간 7,000원(쌍, 음료제공)
- 8. 접수**
 - (1) 일 정 : 1999년 9월 13일 ~ 9월 20일 (정원미달시 당일 접수가능)
 - (2) 장 소 : 학생복지위원회 사무실
 - (3) 방 법
 - 1) 선착순 서류 접수.
 - 2) 1인 1대에 한함(학생증 교직원증 필히 지참).
 - 3) 귀향 목적외의 이용자 배제.

경주캠 14대 학생복지위원회

동약로

‘민혁명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의 ‘국면전환용(?)’ 논란 있어

콩떡과 콩고물



지난 8일 오전 목멱골 분관 주변은 차들로 혼잡했다. 이 날은 '99신규우수 연구센터' 지정사업에서 선정된 SRC(기초과학연구센터), ERC(공학연구센터) 개소식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연구중심대학의 기반을 다지고 과학 동국으로 발돋움 할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과학동국’이라는 말을 개소식의 의의와 더불어 찾는다면 이공계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교는 두뇌한국 21사업 중 화학, 화학공학, 토목환경공학, 전자공학 등 이공계 분야 총 4개의 핵심분야가 선정돼 향후 3년간 25억 여원의 지원을 받게됐다.

“SRC, ERC 선정에 이어 두뇌한국 21 사업까지 이공계 분야의 지원이 늘어 21세기 과학동국으로 더욱 다가가게 됐다”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손뼉을 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이번 행사전반에 걸쳐 있는 두뇌한국 21사업은 그 동안 일부 국립대학에 편향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다만 이공계열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의 이미지만을 심어주고 있다.

“떡은 서울대가 먹고 우리는 콩고물만 먹는데 어느 세월에 배가 불러”

지난 달 28일 서울대에서 열린 ‘두뇌한국 21’ 관련 공청회에서 한 학생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다.

사실 서울대의 경우 총 9백 50여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본교는 향후 3년간 25여원의 지원을 받는다. 물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만 지원이 이루어져 결국 대학간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동약은 SRC, ERC와 ‘두뇌한국 21’ 사업에 대한 축하 현수막만이 곳곳에서 하늘 높이 나부끼고 있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80년대 학생운동당시 남한 내 자생적으로 생겨난 주체사상 추종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으로 탐바꿈했다”는 ‘간첩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북풍’ 사건의 전적을 지닌 국정원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어 전부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PC통신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고려한다면 이번 일이 대규모 조작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민혁명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영환(서울대 82), 하영욱(서울대 82), 조유식(서울대 83), 심재춘(서울대 88) 등 연루자의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문제삼는 민혁명당의 설립 모태인 ‘반제청년동맹’에서 97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따라서 현 서울대 학생들에게 협의가 확장될 가능성을 우려, 서울대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혁명 사건’은 국정원이 만들어낸 잘 짜여진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반 국가단체로 규정된 ‘민족민주혁명당’이나 ‘반제청년동맹’의 활동에 관한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10년 가까이 활동해온 ‘직업 혁명가’ 하영욱이 단 하나의 ID로 6개월이 넘

게 북과 연락을 취해 왔다는 점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서 강화도 근처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간첩선이 수 차례 왕래했음에도, 경비책 일자나 군 당국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어 법적 공방으로 벌어졌던 것처럼 비슷한 시기인 91년 김영환의 입북 역시 진위 여부 자체가 의혹이며, 본인 진술 외에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 없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민혁명 사건 외에도 최근 1, 2년 사이 여러 차례의 조직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해 부산·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영남위원회 사건’과 지난 6월 한양대학교에서 벌어진 ‘반미구국 한양사건’ 그리고 7월 원광대학교 ‘자주대오 조직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되는 조직 사건이 최근 들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의 ‘민심 돌리기’와 ‘국가보안법 개정’ 두 가지 사안으로 요약된다.

작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 경제회복을 빌미로 진행된 반강제적 구조조정과 최근의 파업유도사건, 옷로비사건 등으로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입기 말에 벌어졌던 대규모 간첩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현 시기 극도로 악화된



지난해 12월 구형공판을 마친 뒤 교도소로 들어가는 영남위 사건 관계자들. 인권을 침해한 감청 테이프 등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김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국가보안법 개정을 수 차례 언급해 왔으며, 따라서 지난 10일 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 이리니킬 하기도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정원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보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만만치 않고, 개정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등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예상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법을 존속하거

나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강철 서신’의 저자 김영환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 이리니킬 하기도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정원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보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만만치 않고, 개정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등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예상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법을 존속하거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영남위원회 사건

지난해 7월 22일 민선으로 당선된 울산시 김창현 동구청장을 포함한 부산, 울산지역의 노동·시민단체 인사 15명이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체제전복 및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의 결성 및 가입이었다. 또한 경찰은 이른바 ‘영남위원회’가 민족민주혁명당 하부조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불법적인 감청, 디스크 컷 프린트물과 그들이 벌이는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주된 활동 증거로 삼아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대해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불법적 증거 취득 등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1심에서 구속기소된 15명에게는 3년에서 15년 형이 구형됐지만 부산고등법원의 사건합소심에서 “수집된 통화내용이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고 있어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이적단체 구성죄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반미구국 한양 조직사건

지난 6월 11일 서울 경찰청은 한양대 학생과 졸업생, 군복무중인 휴학생 등 22명을 붙잡아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89년 2월 조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된 ‘반미구국 한양’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뒤 북한의 사주를 받아 민족해방(NL) 계열 후보를 한양대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 학생회장, 한총련 의장에 당선시킨 뒤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해왔다는 것이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체포과정에서 경찰은 정확한 혐의가 명시되지 않은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는 학생운동 탄압과 장관 부인 옷 로비 사건 등의 정치적 치부를 가리기 위한 조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양대 총학생회는 ‘반미구국한양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 및 한총련 이적 규정 철폐를 위한 목표집회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양대생 4명에 대해 지난달 20일 보석금 1천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원이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원광대 자주 대오 조직사건

지난 7월 28일 ‘원광대학교 사회주의 혁명대오’라는 이름으로 원광대 졸업생과 재학생 10명이 보안수사대와 기무사령부에 연행되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측은 ‘사회주의 혁명대오’, ‘자주대오 재건위’ 구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북한 친양고무죄와 국가전복단체조직 혐의로 수사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피의자들이 이미 급진적인 학생운동과 단결된 상태에 있고 원광대의 경우 이미 한총련을 탈퇴하여 조직기반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원광대학생운동은 최근에 북한 기아문제 해결 등 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운동을 펼쳐왔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자주대오 재건” 운운은 도저히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익산시민센터 등 익산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은 지난달 2일 ‘원광대학교 자주대오 재건위 조직사건 대책회의’를 구성해 “공안경찰이 실적위주의 수사관행으로 자신들의 맑고릇을 지키기 위해 해묵은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 조직사건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 kij10003@cakra.dongguk.ac.kr

투자협정 반대 민중행동(가칭) 발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운동 사랑방, 한국노동정책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들이 만든 ‘투자협정 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준비모임’이 오는 15일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이들은 “스크린쿼터 존 폐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한미투자협정 논의가 소강상태에 빠져있으나, 여전히 정부간에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다자간투자협정이 WTO 밀레니엄라운드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11월 30일부터 개시되는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영역 등이 새롭게 의제로 상정되어 자유화·개방화 될 것이며, 농산물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등이 초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형태로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며 준비모임의 목적을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공동활동을 해 온 준비모임은 한미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칭) 발족

26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보연대)’가 지난 1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표출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논의가 정치권의 속도를 따라 잡지 못했다라는 자성 속에서 구성된 국보연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여했다. 국보연대는 폐지 뿐 아니라 개정의 입장까지도 아우른 연대기구로서 “국보법이 하루 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최소한 이번 기회에 현 국보법 상 인권권을 억압하고 유린한 독소조항만이라도 당장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7조 삭제에 대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보연대는 국보법7조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제 시민단체와 개인을 아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 조직을 강화한 뒤 본격적인 국보법 반대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교육대책위 9월 총력투쟁

교육대책위는 △BK21전면 백지화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전면 철회 및 범 국민적 논의기구를 통한 교육정책 전면 재논의 △등록금 삭감, GNP 대비 6% 국가교육 재정확충 대신 공약이행 △국공립대 민영화 및 특별회계법 도입 반대 △교원 임용기관의 목적형 경쟁 △교육 관련법 민주적 재개정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총력 투쟁기간을 오는 15일에서 18일까지로 선포했다. 이에 14일 11시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실에서 총력투쟁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18일에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등록금 삭감, 교육관련법 민주적 재개정, BK21 전면무효화와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파산선고 국민대회(가칭)’ 개최한다.

국가보안법과 남남대화

2백11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에 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방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가보안법 개정의 문제점(이경남 동화연구소 소장), 민족화해와 남남대화(이장희 외대 교수)의 발제가 있은후, 유선호 국회의원, 장수근 자유총연맹 연구실장, 김성만 민족회의 정책위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부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논단**

온 나라 백성이 감옥에 가면 누가 대통령을 할꼬

‘다 떨어진 낡은 운동화’라는 노랫말이 이 사회를 위협에 빠뜨릴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국가보안법(국보법)을 마구잡이로 휘둘러대는 재판석에 앉아 판치를 두드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작은 마음표를 친 위구절은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는 이유로 개사를 지시받은 적이 있는 노래가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틀어막는 무기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어 왔던 것은 ‘국보법’이다. 국가변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예술작품 및 표현물은 잘리워지고 불태워지고 압수된다.

전 대통령의 아들들 국민의 정부 ‘문화대통령’이 사면한 바로 다음날 서울지법 형사상소 3부는 ‘태백산맥’ 화가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이미 수백쇄가 인쇄되어 팔린 초베스트셀러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가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모내기’는 이미 92년과 94년에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작품이므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치고, ‘태백산맥’을 보자. 이 소설이 이적성을 띠고 있다면, 필자를 포함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한다. 이적표현물로 판명된 바로 그날 이후로 수백만의 사람들은 이적표현물 소지를 신고하기 위해 113 전화라인을 불통으로 만들고, 경찰서에 출두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나가다 봤건, 서점에서 봤건, 직접 사서 봤건 ‘태백산맥’을 본 사람은 모두 경찰서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국보법상 ‘불고지죄’에 저촉되어 철창신세를 지게 될 테니까.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게 한 국보법이 존재하게 된 슬픈 역사적 현실은 물론 분단에서 말미암는다. 그러나 국보법은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데 사용되지 않고, 위정자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사용돼 왔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케 하는 존재와 그 존재를 둘러싼 세계사적 기운이 이미 쇠잔해졌는데도(탈냉전) 국보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즉, 체제

내부의 적을 견제 및 압살하려는 권력자들의 목적이 국보법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보법은 문제인가? 표현의 자유가 국보법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은 왜 문제인가?

국보법은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의 애환과 고난을 노래해 왔으며, 자신의 예술적 질료로 그것들을 끊임없이 사고하고 형상화해 왔던 문화예술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짓밟고, 그들의 예술혼을 갉아먹었으며, 자유로운 예술적 소통을 가로막아 왔다. 미학적으로 볼때, 창작 및 비평에 있어 비전문가인 행정당국(사법부)이 특정한 방식의 편견에 입각하여 자의적으로 추론한 해석에 따라 한 작품을 난도질하고 그 작품을 생산한 예술가를 처벌함으로써 애초부터 왕성한 예술창작의 에기를 꺾어버렸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보법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영역을 알게 모르게 제한시켜 왔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획일화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빈곤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스스로 권력과 질서에 순종토록 ‘끊임없는 자기검열의 콤플렉스’ 속에 우리 사회 민초들을 몰아 넣어버렸다. 획일화된 문화는 획일화된 사



안 성 배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회질서를 낳고, 그것은 사회의 창의적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국보법이 존재한다면, 21세기 우리사회에 더 이상 ‘비전은 없다’.

‘태백산맥’의 예에서 보여지듯 국보법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아니, 애초부터 죄형법정주의의 3원칙(명확성, 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에도 맞지 않는 악법이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보안법의 대를 이은 이런 악법이 존재하는 한 예술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짓밟힐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늘 존재할 것이다.

이제 국보법의 수령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구제해야 할 때가 왔다. 국보법 폐지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다는데 반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우리 모두를 좌절과 무기력 속에 가두어 왔던 국보법을 철폐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간첩단 사건과 국보법폐지 시기상조론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우리사회는 지금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겪었던 ‘간첩단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환씨가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이론 지침서였던 ‘강철서신’의 저자였다는 것과 현재 우리사회 진보언론을 대표하고 있는 월간 ‘말’의 전·현직 기자가 두 명이나 연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보법 개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사건임에 틀림없다는 것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이 사건을 두고 벌써부터 보수언론에서는 ‘주사파’ 학생운동권은 이미 북한의 배후조정을 받고 있었으며 남한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전위대 역할을 해왔다고 자신있게 단언하고 있는 실정이나 말이다.

그러나 김영환씨가 간첩이었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시점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 동안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와 같이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을 받고, 현재 정부내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 움직임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

지난 11일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중년 남자들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사무실에 무단 난입해 수색영장의 확인과 신분증 제시 없이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등 ‘국가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일부언론에서는 최근 김대중정부 들어서 발표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반미구국헌양’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 상조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큰 일을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변수에 의해 주저앉고 말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러나 민간사회운동이 탄압대상일수 없고 국보법 개폐가 시대의 요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회의 역할

학생회란 무엇인가? 이는 학생회의 위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기에 앞서 꼭 한번은 되짚어 보아야 할 질문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사에 의해 탄생한다. 즉, 다수결 원칙인 선거로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회는 학생들의 지지속에서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자격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힘을 배경으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학생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정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위의 논리대로라면 학생회는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소한 그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은방골의 학생회를 보면 위 두가지 중 어느하나라도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없기에 학생들의 대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방중 생활은 제쳐두더라도 학기가 시작하자 2주가 지났지만 제대로된 회의 한번 열린적이 없으며, 대부분이 중운위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또한, 내세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서 하나 준비하지 않는 모습과 중운위 회의에서조차도 이를 단언시 여기는 풍토도 나오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물론, 지난 한 학기 동안 모든 사안에 소홀하였다는 말은 아니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숙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학생회의 모습이 나태해져 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진정한 대표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힘을 빌려 사회 전 반과 학내의 학생권위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총 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생회 및 자치기구가 더 큰 힘을 갖고 학생들의 권리신장에 앞장 설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회의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같이 아쉽다.

물론,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학생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학생회에서조차 자신만을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학생을 위한 학생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학생회의 존재의미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기지촌여성 이정숙씨 의문사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철저한 수사 통해 진실 밝혀야

지난 7일, 동두천 미군 부대 옆 기지촌에서 한 40대 여성이 숨진체로 발견됐다. 기지촌 매춘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해 7월 기지촌 여성운동단체 ‘새움터’에서 1년 2개월째 상근 직원으로 일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던 이정숙 씨(48세).

경찰은 이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술에 취해 침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사”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새움터 동료 직원들은 “평소 동거 중이던 미군 중사의 잦은 구타를 호소한 바 있다”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미군 코러 중사를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타살 의혹을 배제한 채 동거 미군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고 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연구소는 “타살을 추정할만한 외상이나 근거가 없고, 자살도 아니다”라며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에 의하면 발견 당시 이씨의 방문뿐만 아니라 평소 잠그지 않던 중간문도 잠겨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

라 입과 코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엎어져 있었고, 시신의 주변에는 많은 양의 피가 흘러 있는 것으로 보여 타살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2, 3주 후에는 독극물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사인을 밝히기 힘들 것 이라는 게 담당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새움터 대표인 김현선씨는 “이씨의 사인보다도 혐의가 짙은 미군의 알리바이를 조사해달라는 것뿐이다. 기존의 기지촌 여성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도 흐지부지 은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확한 수사와 이의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 97년 조종필씨 사망 사건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조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자녀 P군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한국측이 재판권을 갖고 있으나,



부속문서에 의해 결국 미군은 치외법권을 갖게되어 있는 한-미 행정협정 때문이다. 현행 ‘한-미 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 신병이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최종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의 계속 이 구금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측은 미군 피의자를 제대로 추동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미군 피의자가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조차도 최종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요청

하면 언제든지 신병을 인도해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이정숙씨 사망사건 역시 ‘한-미 행정협정’의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이 미군에게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때 반대로, 그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은 ‘최악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co.kr

모집단위광역화 논란

동국발전 갈림길 ... 어디로 가야하나?

9월 중으로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는 것으로 2천학년도 입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학내의견을 수렴하고자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본지에 실는다.

-편집자

- 일 시 : 99년 9월 9일 오후 4시
- 장 소 : 본사 회의실
- 참석자
구승회(윤리문화학) 교수
김낙년(경제학) 교육개혁추진팀장
이선진(수교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
- 사회자 : 본사 유철주 기자

사회=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는.

구승회= 최근의 두뇌한국21 입안·선정, 사립학교법 개악 등의 과정을 보면 대학교육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는가 우려가 된다. 어떤 부분은 개혁이 되었지만, 어떤 부분은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도 있어 혼란스럽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낙년=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 정원 확대과정 속에서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양산해왔으며, 졸업장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변화해 되는 시기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주입식 고등교육 보다는 창의적 인간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 방향이 바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교육의 내용이 이에 걸맞게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선진= 총체적으로 교육철학이 다시 잡히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일 수 밖에 없다. 농어촌 학교를 통합하고 두뇌한국21의 경우에도 1년에 2천억원의 예산 중 서울대에 약 9백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같이 효율성 중심의 교육을 해나가는게 김대중 정부의 모습이다. 몇몇 학교만 키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시장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는 이상 개혁자체가 어려워진다.

김= 시장 원리는 경쟁의 원리로 볼 수 있다. 교육이나 연구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잘못된 교육을 황폐화시킬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과거와 같이 개선하려는 장치가 없다면 교육이나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경쟁원리의 제도로 강의 평가나 연구성과 평가들이 있는데, 이는 잘 평가하면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본교에 마련된 교수연구업적평가 기준의 경우, 이것이 연구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긴 하다.

사회= 현재 본교에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모집단위광역화 문제 또한 이러한 교육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다면 모집단위 광역화가 왜 시행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이= 모집단위 광역화는 현 사회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 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 3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실험대학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산업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이었다. 모집단위광역화 또한 21세기 도래할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산업사회개편

에 맞추어 정권이 추진하려는 것이다. 또한 모집단위광역화라는 흐름은 우리나라 풍토보다는 외국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추후에는 외국대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쉽게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학정책자들이 우리 나라 자체적 교육을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이 별로 없고 미국이라는 모델로 모든 것을 맞추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재정적, 행정적 등 대내외적 압력으로 모집단위 광역화를 요구하고 있다. 각 학교는 자신에 맞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다.

구= 솔직히 모집단위광역화를 왜 하는지 잘 모르

명 남짓되는 영세한 학과체계에서 여러 분야의 강의를 한 교수가 한다는 것은 비슷한 강의를 양산하는 등의 무리가 있다. 특히 인문 사회에서는 통합사고방식이 필요하고, 창의적 사고를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이러한 체계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큰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듣도록 하려는 것이 학부제의 취지였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부제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며 원래 취지대로 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학생선택권이 보장되고, 폐쇄적 운영의 학과체계를 깨는 게 중요하다. 이는 96년부터 시작된 학부제는 학문적으로 볼 때

급히 광역화를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 만약 모집단위 광역화가 시행된다면 가정했을 때 사실상 실패로 끝난 학부제의 개선과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적 받을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현재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학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학

이= 교육개혁이 수요자 중심이지만 돈내라 외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회에서는 2학기 때 어떻게 해서든 모집단위 광역화를 반대할 것이다. 이미 떠나간 버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겪어야 할 일이라면 총장이라든가 이것을 관할 하는 보직교수들이 직접 나와서 학생, 교수들과 이런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학부제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어야 한다. 평가없이 확대하는 것은 혼란만 확대하는 일이다.

김= 교육개혁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평가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기초학문이 고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대학별지정공통과목을 기초학문처럼 만들겠다든지, 교양과목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틀을 짜는 일들이 평가작업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수들의 충실한 강의와 학생들도 대학에 와서는 힘들게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원래 취지는 학생들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요에 교과내용을 맞춘다는 뜻이다. 그 기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교수들 구성이 바뀌어야 될 지도 모르고, 과목을 짜기 위한 많은 연구작업과 수요측의 욕구가 어떤지 조사가 있어야 한다.

사회= 본교도 다른 주요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구= 언제부터가 대학교육개혁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많은 대학들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광역화를 확실적인 틀에 따라 적용하지 말고 학문적 특성을 잘 살리고 우리 대학 내에서 단과대학이 처해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잘 파악해서 해야 한다. 둘째로 교과과정과 기초교양과목을 과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두해 혹은 사오년 만에 개혁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부제 때만큼의 우려곡절을 뒀을 수 있는 한 줄여 모집단위 광역화를 실시해야 한다.

이= 동국대하면 인문사회와 불교, 즉 동양학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대학이 가는대로가 아닌 특색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동국대 자체의 21세기를 향한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인 학사운영으로 학내구성원 모두가 본교의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교가 불교종립학교이니 만큼 종립학교에 걸맞은 올바른 지식인을 양성해낼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종단차원에서 구체적인 발전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김= 교육개혁의 총체적 목적은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에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보완해가는 것이 교육개혁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또한 현재까지 안주해왔던 것에서 변혁해야 할 것이다.

기획부



구승회(윤리문화학) 교수



김낙년(경제학) 교수



이선진(수교4)

“학문·대학간 특성 고려하는 유연한 모집단위광역화 수립해야”

“사회적 수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집단위광역화 이뤄져야”

“모집단위광역화 유보, 학부제에 대한 평가작업 선행돼야”

졌다. 학부제 실패의 대안인지, 긍정적 지향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는 군사문화가 지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음모를 들고 나오는 습성이 있는데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음모는 아닌지 추측해볼 수도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으로서의 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과 이에따른 재정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기본적으로 광역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광역화를 학문적 특성에 따른 구분없이 우리나라 전체의 대학에다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교육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각각의 대학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하라고 하지만 거기에 줄안서면 큰일날 것 같은 총장들의 불안감으로 교육부에서는 줄 세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김= 이 제도는 좋지만 시행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과에 교수가 4-5명 많아야 10

명 남짓되는 영세한 학과체계에서 여러 분야의 강의를 한 교수가 한다는 것은 비슷한 강의를 양산하는 등의 무리가 있다. 특히 인문 사회에서는 통합사고방식이 필요하고, 창의적 사고를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이러한 체계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큰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듣도록 하려는 것이 학부제의 취지였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부제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며 원래 취지대로 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학생선택권이 보장되고, 폐쇄적 운영의 학과체계를 깨는 게 중요하다. 이는 96년부터 시작된 학부제는 학문적으로 볼 때

급히 광역화를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 만약 모집단위 광역화가 시행된다면 가정했을 때 사실상 실패로 끝난 학부제의 개선과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적 받을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현재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학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학

이= 교육개혁이 수요자 중심이지만 돈내라 외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회에서는 2학기 때 어떻게 해서든 모집단위 광역화를 반대할 것이다. 이미 떠나간 버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겪어야 할 일이라면 총장이라든가 이것을 관할 하는 보직교수들이 직접 나와서 학생, 교수들과 이런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학부제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어야 한다. 평가없이 확대하는 것은 혼란만 확대하는 일이다. 김= 교육개혁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평가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기초학문이 고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대학별지정공통과목을 기초학문처럼 만들겠다든지, 교양과목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틀을 짜는 일들이 평가작업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수들의 충실한 강의와 학생들도 대학에 와서는 힘들게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원래 취지는 학생들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요에 교과내용을 맞춘다는 뜻이다. 그 기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교수들 구성이 바뀌어야 될 지도 모르고, 과목을 짜기 위한 많은 연구작업과 수요측의 욕구가 어떤지 조사가 있어야 한다.

기획부

SRC · ERC 우수연구센터 선정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주관으로 실시된 '99신규우수연구센터' 지정사업에 본교가 SRC(기초과학 연구센터)와 ERC(공학 연구센터) 부문에 선정됐다. 정보통신우수시범대학, 정보통신·영상분야 및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선정에 이은 이번 SRC·ERC 우수연구센터 선정으로 본교는 과학동국에 한걸음 바짝 다가서고 있다. 향후 9년간 1백50여억원의 지원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정 기반미련효과뿐만 아니라,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등의 시너지 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양자가능반도체 연구센터와 밀리미터파신기술 연구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편집자

양자가능반도체 연구센터

인공두뇌는 우리가 만든다



강 대원 교수
이과대 물리학과

반도체 수출이 IMF 이후 경기 회복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여건에서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소자분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서있기 때문임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정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반도체 소자 연구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 잘 알다시피 반도체 소자는 집적도(같은 크기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 소자를 실게하여 제작하는가 하는 척도로서 현재 약 1백8개의 반도체 소자가 집적되어 있음)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것은 1개의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작아져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한없이 증가시켜서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컴퓨터개발이 가능할 것인가(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려면 대략 1천18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가 집적되어야 함) 또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인간보다 지능이 발전한 로봇의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반도체 소자가 점점 많이 집적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반도체 소자를 동작시키기 위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이 때 열이 발생하며 현재 집적된 수준에서는 발생하는 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이상의 집적도를 넘어서면 발생하는 열 때문에 동작 불능상태가 된다. (가정집에서 콘서트 하나에 커피포트, 전기다리미, 선풍기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과 같은 현상 때문임) 발생하는 열에 의한 화재의 위험 때문만은 아니다. 반도체 소자 한 개를 동작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이때 실제로는 전류를 흘리지만 이것이 에너지로 환산됨) 집적도가 커지면 반도체 소자 한 개를 동작시키는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며 어느 한계

에 이르면 실온(여름을 기준으로 30℃)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에너지와 구분이 되지 않아 공기 중에 반도체소자를 놓아두면 전류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열에너지가 받아 동작되어 조절불능상태가 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집적도가 높아져 한 개 반도체소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바로 이웃한 반도체 소자끼리 간섭현상(이웃한 반도체 소자끼리 서로 참견하는 물리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에로서 몇 volt에서 동작이 가능했던 것이 전혀 다른 volt에서 동작됨)소위 양자현상(물체의 크기가 작아지면 성질이 달라지는 물리현상을 일컫음)이 일어나게 된다.

실사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기술을 도입하여 해결했다 하면 인공두뇌는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반도체 소자의 동작의 기본이 되는 binary bit 개념(한 개 반도체 소자가 '0' 아니면 '1' 두 가지 값만 기억하고 있어서 기억용량은 2ⁿ에 비례함)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적도 증가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한 개의 반도체 소자가 가지는 기억을 '1', '0', '+1'처럼 3가지 값을 기억 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기억용량은 3ⁿ에 비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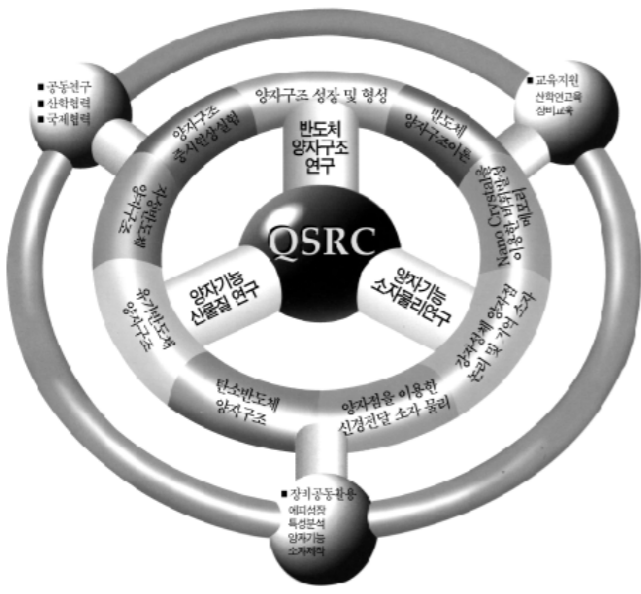
이와 같은 능력을 갖게 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제안되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단전자 트랜지스터(Single electron transistor:SET), Floating gate memory, 양자 bit(Quantum bit:qubit), Carbon nano-tube, Organic quantum structure, Spin valve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제시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자성체와 반도체 양자구조를 결합한 소위 Spintronics(자성체의 특성인 Spin 현상과 반도체 성질중 전자성질인 electronics를 합성한 신조어) 구현을 궁극적인 연구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센터가 종료되는 10년 후에 부딪히게 될 전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할 운명을 건 한판 승부이며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내 한 반도체 회사에서 로알터 등을 제외하고 1년 순위이익이 2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집적이 갈만하다.

본 양자가능반도체 연구센터는 이미 이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분자선 에피택시(Molecular beam epitaxy : MBE, 대당 100만불) 3대 등 고가 첨단 반도체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양자가능 반도체 연구에 관한 많은 업적을 가진 연구원들 23명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센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뇌도 필요하지만 용기 있는 동국인의 꿈과 열정이 필요하다. 동국인이면 누구나 이 꿈을 이룰 수 있고 본 연구센터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밀리미터파신기술 연구센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해 나갈 신기술 연구

고도 정보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산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선 정보통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라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어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량의 폭주로 인하여 기존의 마이크로파(microwave) 대역의 주파수 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이크로파 대역을 이용한 무선통신으로는 그 대역폭의 한계 때문에 원격진료, 원격탐사, 전자미술관 등 고급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UHQ(Ultra High Quality)급 고품질 영상통신을 실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차세대 광대역 무선정보통신의 필수적인 매질로 밀리미터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약 2천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는 PCS의 사용주파수는 1.8 GHz인데 이는 자유공간에서 약 17 cm의 파장에 해당한다. 향후 무선통신의 사용주파수가 점점 높아져 30 GHz 이상이 되면 파장이 10 mm 이하가 되는데, 이와 같이 파장이 밀리미터 단위가 되는 전파를 밀리미터파라 한다.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광대역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초고속으로 동작하는 반도체 소자와 이를 집적한 밀리미터파 단일칩 집적회로 MIMIC(Millimeter-wave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그리고 이를 이용한 무선통신 시스템 구현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는 반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대용량의 무선통신, 고품질의 무선 영상 서비스 등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산업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소자 및 시스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서는 밀리미터파에 관련된 소자 및 시스템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100 GHz 이상 대역의 첨단기술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 분야의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어, 21세기를 주도할 밀리미터파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런 시점에서 반도체, 초고주파 및 무선통신 공학분야에 풍부한 연구 및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본교 전자공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11개 대학교 교수 및 IG 종합기술원 연구진들이 힘을 합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밀리미터파 대역의 신기술 확보'를 기치로,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MINT : Millimeter-wave Innov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한국과학기술의 우수공학연구센터(E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 선정되었다.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 센터의 연구목표는 첫째 140 GHz 대 MIMIC 기반 무선통신 모듈 개발과 UHQ 급 무선통신 시스템의 구축, 둘째 무선 정보 통신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 셋째 연구결

과를 활용한 수출 지향 산업 창출, 넷째 실무 중심의 우수한 인재 양성 등이다. 센터의 주요 연구내용은 차세대 고품질 무선통신 서비스에 활용될 100 GHz 이상 대역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각종 소자와 이를 집적한 MIMIC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핵심 기술과 차세대 영상 표준으로 예측되는 UHQ급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관련 첨단 기술 등이다.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 센터는 광대역 밀리미터파 무선통신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초고속 반도체 소자 연구의 선두주자가 되어 고부가가치의 반도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밀리미터파용 초고속 반도체 소자 및 MIMIC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 센터의 선정으로 동국대학교와 특히 공과대학 발전에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고 동시에 21세기에 첨단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학교 차원에서 마련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보통신 특성화 발전계획과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 센터의 연구분야가 맞물려 무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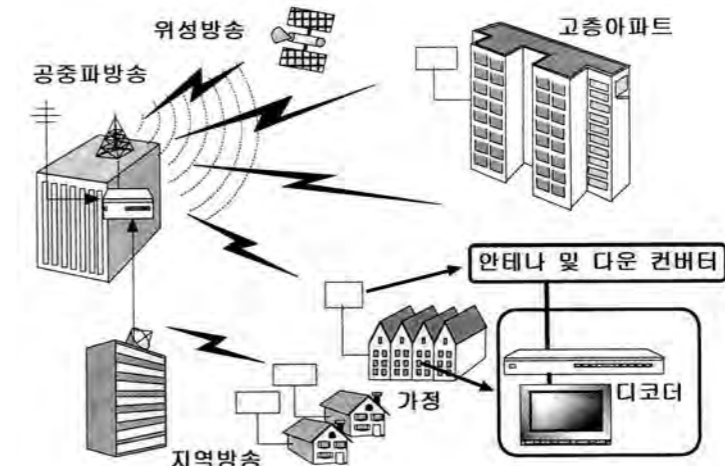
둘째,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학교 전체적으로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셋째, 실무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많은 우수 공학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의 사회진출을 통하여 본교의 위상제고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동국대학교가 아닌 세계적인 동국대학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는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등의 주요 대학 및 연구소 등 11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본교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진구 교수
공과대 전자공학과



연재소설 (2)

계론의 필통

글 이우상 그림 삼철공

그런데 지금의 푸른 기와집에 월세방 얻어 사는 이는 그런 우스개거리 하나 없다. 본디 근엄하기도 하겠고 IMF라는 거대 공룡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건지, 그래도 신문에서는 그것이 유우며 감각이 뛰어나다며 가끔 우스개 소리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글세, 그계 영 공감가지 않는 바이라. 주변 사람들과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실리기도 하지만 꼼꼼히 뜯어보면 함께 웃는 이들은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 이른바 가신들의 웃음이라. 가신이란 주군께서 스위치 근처에 손만 댈려고 해도 박장대소하고 바지자락 아래서 주먹만 슬며시 쥐어도 뒤통 벗어 채치고 칼로 배를 북북 그을 수 있는 축들이 아닌가. 그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 고민이다.

계론의 필통을 기억하는 녀석이 몇이나 될까. 이미 그가 계론이 아닌 것처럼 그의 필통을 기억하는 녀석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 아래 뚝뚝 뭉쳐진 차돌이었고 계론은 저만치 떨어진 표적지에 붙은 벌레였다.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 아래 뚝뚝 뭉쳐진 차돌이었고 계론은 저만치 떨어진 표적지에 붙은 벌레였다. 그들이 예측할 리 만무하지. 무리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은 행복이었으며 무리의 번두리에 떨어진 위상은 불행했다. 위성의 불행은 덩어리로 뭉쳐진 것들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장치이다.

누구랄 것도 없이 선광과 호기심을 떨치고 따돌리기로 치환시키는 능력이 뛰어났다. 저마다 무리 속에 개인을 감추고 계론을 향한 송곳질에는 우열을 가능하게 어려웠다.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 아래 뚝뚝 뭉쳐진 차돌이었고 계론은 저만치 떨어진 표적지에 붙은 벌레였다. 그를 함부로 찢러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면책 특권이 있었다. 저항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행하는 행위에서 풍겨오는 새콤달콤한 향기에 우리는 한껏 취해 있었다.

우리와 피부색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빼면 그는 잘생긴 녀석이었다. 짙은 듯이 선명한 이목구비와 특히 반듯한 쌍꺼풀이 푸른 눈가에 선명했

다. 들창코에다가 대갈통에는 기계총 자국에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 우리들의 물골은 그를 경멸하기에 충분했다. 또래보다 한 뼘 정도 훗날한 키도 계집아이들에게는 욕심나는 매력일 것이다. 금발을 필러이며 공놀이를 할 때면 서글서글한 그의 파란 눈이 보석처럼 빛났다. 껌둥이 새끼처럼 까맣게 그을린 우리들의 피부와 뺨뺨뺨리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흥물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차돌처럼 뭉쳐져 있고 그는 파도에 쓸려와 저만치 밀려나 있는 부유물이었다. 그는 우리들 사이에서 일체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었다. 그는 우리 세계에서 금지산자였다. 우리끼리 코피가 터지고 눈탱이가 텅텅 붓도록 싸우기도 하지만 그를 향한 정서에는 이물질이 없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그를 괴롭히는 정신에는 완벽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의 의지에 의해 가담할 수 있는 놀이는 아무 것도 없었다. 축구를 할 때 편가르기에 숫자가 맞지 않으면 겨우 기회가 주어진다. 그 지시는 우리를 또래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덕태나 용수의 몫이다.

“야! 아이노꾸(혼혈아)! 너는 저편에 들어가.”

우리를 끼리 편가르기에 찢어맞으면 계론은 하염없는 청중이 되어 운동장 번두리를 맴돌아야 했다. 선수 중 한 명이 지지거나 부상을 당해야 논란 끝에 계론이 투입된다.

“호식이 자리에 아이노꾸 집어넣어라.”

“안돼! 아이노꾸가 들어가면 우리 편 망한다. 절마(저놈) 알때나 잘 뛰는데, 그냥 하자.”

“그래도 호식이 못뛰겠다는데, 숫자가 안맞잖아.”

“좋아. 좀 해보고 껌이 안되면 아이노꾸는 다시 빼야한다.”

“알았어. 아이노꾸는 수비만 시키구마.”

물위를 떠도는 죽은 물고기 같은 계론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금방 피동피동 살아 날 뻔했다.

“아이노꾸! 너는 수비만 해야한다. 공격에 가담하면 빼뿌린다. 알았어!”

철조망같은 규제가 그의 등에 칭칭 감겼다.

대륙의 꿈

8월 12일 제4차 우리말 정보처리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 지린성(吉林省) 연지(연길)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 청사는 3년 전의 초라하던 모습과는 달리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대합실도 꽤 넓었다. 공항청사 정면 옥상에는 큰 글씨의 '연길'이란 한글이 띄어쓰고 있었다. 순간 우리 나라 어느 한 지방에 온 느낌이 들었다. 마중 나온 현지의 조직위원들도 3년만에 만난 터라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였다. 연길 시내로 들어서니 전과 달리 깨끗하고 정리된 도시 분위기가 느껴졌고, 간판에는 우리 눈에 익숙한 남한의 글씨꼴들이 자주 보였다.

8월 13일 학술대회 개회식이 있었고, 중국 인민대회 중앙상무위원인 연변조선족자치주 오장숙 주임의 축하 연설도 있었다. 조선족자치주는 중국내 53개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모범 자치주란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성과는 94, 95, 96 3차 회의에서 남·북한 및 중국, 미국, 일본의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던 전산 용어, 자판, 자모순, 코드 등 4가지 주제 가운데 전산용어 분야에서 표준안을 완성하여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점이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간 애써왔던 북한 학자들은 불참하고 심양 영사관 직원이 대신 참석한 점이다. 특히 지난번 용어표준 분과에서 예순의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밤 새워 토론하였던 북한의 허주 선생께서 애석하게도 작고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모두 애도를 표하였다.

한편으로 이번 회의에는 초청 인사로 중문정보처리학회 비서장을 비롯한 한족 학자와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장족(티벳), 위글족(신장), 몽골족(내몽골)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민족 언어 문자처리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4차에 걸쳐서 한국어정보처리 학술회의를 열어온 조선족들을 너무 부

달하나 천강에

럽게 생각하였다. 14일 저녁 식사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모란봉 식당에서 즐겼다. 초빙된 소수 민족들도 그들의 민요를 불렀고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은 남·북한의 노래를 각각 불러 주었다. 막바지에 남한의 한 원로 교수님이 광복전 유행가를 신청하였지만 남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종업원의 말에 많은 분들이 화를 내었고 지배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모두 식당을 나오고 말았다.

다음날 중국 내 유일한 한글 잡지인 '대중과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독 신청을 하였다. 심양의 발해대학 김희범 학장으로부터 동국대 학생들이 심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귀국하는 길에는 연길의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컴퓨터 교육 봉사를 하고 귀국하는 청년을 만났다. 우리 나라도 개발 도상국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 대륙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무언가 해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다.



변정웅 자연대 컴퓨터학과 교수

독립예술제 99

“자유로운 상상력·실험정신 분출한다”

문화반란 일으킬 대안문화축제 ... 한국적 프린지 페스티벌 추구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언더그라운드 문화반란'을 일으켰던 '독립예술제98'은 대안문화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비록 순수 대학생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획일적인 상업문화나 권위적인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개성과 자기정체성을 자유롭게 추구한 독립예술제98의 모습은 대안문화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로 곳곳에서 펼쳐진 독립예술제98은 84개 예술단체, 1백22회의 공연, 총 5만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함께한 대규모 축제의 장이자 저예산 순수예술축제의 전형을 마련하는 장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립예술제99'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새로운 문화전년의 미래적 가능성을 가능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이번 독립예술제는 연극·무용·마임·음악·미술·만화 등 11개 장르에 걸쳐 1백50여 공연예술단체가 참여하며, 60여편의 독립영화 상영될 예정이다. 학술행사와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5개 부문행사-중구난방(아외영화제, 거리마임, 행위에

술, 슬라이드쇼 등), 이구동성(총체극, 영상연극, 음악극 등), 고성방가(릴레이 콘서트, 한가위 레이드파티 등), 내부공사(미술작품전시), 암중모색(독립, 단편영화 상영)가 치러진다.

독립예술제99는 유럽, 북미지역의 대안문화축제 '프린지(fringe) 페스티벌'의 전형을 시도한다. 82년 이후 계속된 프린지페스티벌은 비주류 문화예술인의 열린 공동체로서 현재 북미 전역에서 10여개 페스티벌이 36개국 1천여개 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독립예술제99는 예술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프로그램의 공동운명을 기본으로 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이 분출하는 대안문화축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퇴폐·향락·소비문화가 아닌 젊은이들의 능동적인 문화비전을 제시했던 독립예술제, 올해 독립예술제도 자유로운 상상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실험적인 공연으로 새로운 문화지형을 형성할 것이다.

문의 (02)512-6903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지난해 열린 독립예술제98은 저예산 순수예술축제의 전형을 마련하는 장이었다.

구분	행사명	일정	장소
사전행사 / 부대행사	포럼	9.17(금)	문화사랑방 대회의실
	개막공연	9.18(토) ~ 19(일)	만남의 광장-한국정원 야외극장
	부대행사	9.20(월) ~ 26(일)	미술영상실
중구난방 (거리예술제, Street Festival)	중구난방	9.20(월) ~ 26(일)	둘의 광장, 제4주차장 등
	이구동성 異同聲 (무대예술제, Theater & Performing Arts Festival)	9.20(월) ~ 26(일)	자유소극장
고성방가 高聲放歌 (음악축제, Music Festival)	고성방가	9.22(수) ~ 26(일)	야외놀이마당
	내부공사 內部工事 (미술·전시, Visual Arts Festival)	9.20(월) ~ 26(일)	한국정원 야외극장
암중모색 暗中摸索 (영화·비디오, Film & Video Festival)	내부공사	9.13(월) ~ 26(일)	미술관 제5전시장
	암중모색	9.13(월) ~ 26(일)	만남의 광장
	암중모색	9.20(월) ~ 26(일)	문화사랑방 대회의실

매체비평

연극편

허탕

“무대와 객석 사이의 창살, 감옥이지만 호텔방 같은 무대와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 관객, 과연 어느 곳이 감옥인가?”

즐거움 죄수 유쾌한 감옥!

허탕

TV보고 보면 하고, 듣고서도, 만만하게 다뤄지지 않는

이게 뭐 감옥이야?

장진 작·연출의 연극 '허탕'은 관객으로 하여금 '세상은 과연 실존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깨끗하고 예쁜 벽지와 깔판만 칠해, 고급 오디오와 수십장의 CD, 그리고 전화... 무대 가운데 철제문과 창살만 있다면 나무랄데 없는 호텔방의 정경이다. 그런데, 이곳은 어이없게도 감옥 안이다.

감옥같지 않은 감옥을 마련해놓고 그 안에 덩배, 달수, 화이라는 죄수를 수감한 채 대학로에 다시 판을 벌인 장진 연극, 영화계는 물론이고 TV까지 중후방진 활약하고 있는 장진은 연

극계에서 드물게 고정 마니아팬을 확보하고 있는 연출가이자 극작가이다. 연극 '서른 사람들' '백시 드림' '배직 타임'과 영화 '기막힌 사내들' '간첩 리치진' 등 그의 작품 대부분이 그러하듯 '허탕'도 그의 특유의 유머와 유희가 살아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한다.

앞서 밝혔듯 연극의 배경은 감옥이지만 무대는 호텔방이다. 덕배는 새로 수감된 죄수 달수에게 커피를 권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길러온 집화도-전화번호는 알 수 없지만- 받는다. 누가 그들을 수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하는 물건은 부조진 소리만 치면 얻을 수 있고, 그들의 배설물로 건강까지 체크해준다.

처음에는 달수도 어리둥절해하지만 곧

그곳에서 1~2년 산 죄수처럼 익숙해진다. 그런 그에게 덕배는 자신들이 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유능한 죄수'이기 때문에 입암리에 발출을 준비해야한다고 달수를 다그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절망되지 않을 최상실을 감시카메라 앞에서 끊임없이 자른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관객들은 흔쾌한다. 무대 곳곳에 장치된 캠코더와 CC-TV 덕분에 그들의 일거수, 일부족은 물론이고 그들의 심리, 연출자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마치 관객이 그들을 수감하고 감시하는 간수같다.

또한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최상실이 있다. 그러나 그 최상실은 배우들이 감옥 안에 있음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관객들이 감옥안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최상실 밖 무대 풍경은 '호텔방'인데 이쪽 객석은 그리 편안하지 않은 의자들만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곳이 감옥인가?

이처럼 장진은 여러 장치로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며 우리는 그 감옥에 수감된 죄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느 정도 인락한 자유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들은 극장 안에서는 '불편한' 웃음을, 하지만 극장 밖을 나서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 과연 진실인가, 어쩌면 우리는 허탕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자은소식

학교안에서

까장터

'까'를 발휘하고 싶은 사람 '까'를 관람하고 싶어하는 사람 을 위한 까장터. 본교 서울캠 여학생들이 2학기를 맞아 까장터를 개장한다. 까장터는 동국인의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위해 마련된 작지만 아름다운 문화공간이다. 이번 공연은 '세스존 연주와 카수'로 김중원(수교3)과 김소영(불교학부2)이 꾸밀 예정이다.

오는 15일 오후 12시부터 1시, 서울캠 계산관 앞마당에서.

99 English Essay Contest

본교 영자신문사 '동국포스트'의 예세이 콘테스트.

본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원서는 29일까지 학생회관 지하 영자신문사에서 접수한다. 참가자 지참물은 필기도구와 사전으로 콘테스트 중 사전사용이 가능하다.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만원과 15만원이 상금으로 주어지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캠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2260-3493

여름 축제

경주캠 의과대학이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 3일간 치러질 이번 축제는 15일-볼링대회, You Loss 공연, 의대 Nightclub 공연, 16일-유지나 교수의 강연회, 농구·포켓볼 대회, 17일-스타크래프트 대회, 의대 동물패 한두레 공연 등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캠 의과대학(동대부속병원 뒤)에서.

학교밖에서

윤민석 라이브 콘서트

노래같은 인생을 살아온 작곡가 윤민석의 첫 개인 콘서트. 독집음반인 '참 좋은 풍경같은 사랑' 발매 기념공연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신형원, 안치환, 꽃다지 등 여러 노래전투들이 어우러져 노래뿐만 아니라 시 낭송, 노래에 얽힌 이야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17일 7시30분, 한양대 동문회관 대극장에서. 문의 3395-9176

국악과 정기연주회

경주캠 국악과에서 제 5회 정기연주회를 가진다. 밤패, 불교무용 등으로 이뤄지는 1부와 아리랑, 창부타령, 민요 등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경주 서리별문화회관에서.

90년대 대학문화의 정체성

공동체 문화에서 하위문화와 소수문화로



90년대, 대학문화는 과연 대중문화와 차별을 갖는가. 본사 문화부는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총 3회의 기획을 마련했다.

1. 대학문화의 모습
2. 대학문화의 정체성
3. 대학문화의 대안찾기

대학문화에 대한 논의에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학문화는 죽었다'는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문화의 힘과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두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대학문화의 정체성을 살펴볼 것이며, 다음 기획에서는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모습의 대학문화에 그려보고자 한다.

편집자

지금까지는 '대학문화'가 대개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대중문화와 적대적 위치에 놓여 있고 또한 그라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대학문화에 대한 상이한 시각 때문에, 대학문화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보다는 '이미지' 그 자체로 남는다. 이미지는 구성되면서 동시에 가변적이고 복수적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바로 여기에 대학문화의 정체성을 논하는 어려움이 있다. 80년대의 대학문화는 분명 국가권력과 상업대중문화에 대해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이고 단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면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90년대 이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학문화가 내외부적 혼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80년대의 뚜렷한 정체성의 이미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즉 대학문화의 위기는 대학생 대중들의 의식 및 감수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대학문화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은 93년이다. 이때는 '문인정부'가 등장했고,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탈바꿈한 시기이다. 한총련의 탄생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확립된 학생운동 세력의 확장이었으면서도, 대중성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자기인결성과 사상적 순결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96년 연세대 사태와 그후의 대학문화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반복했다.

그런 배경에서 대학문화의 방향을 생각할 때, '청년 문화'로 지칭되는 70년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당시는 미니스커트와 장발, 섹스뮤직과 통기타, 청바지 등 서구의 자유주의적 문화가 유입되는 시기였고 동시에 유신독재라는 국가권력과의 정치적 싸움을 치열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낭만성과 저항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낭만성의 부분이다. 다시 말해 낭만성으로 표현되는 대중적 취향과 욕망이 '자연스럽다' 국가권력의 검열장치들과 충돌하고 저항 지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90년대 용어로 한다면, 하위문화적 실천들이 국가장제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90년대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80년대에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숨막혀 있던 대중들은 90년대 들면서 대중문화의 창결과 더불어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제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정치적·사상적 차이를 넘어 전반적인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대학문화의 위기는 대학생 대중들의 의식 및 감수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 ... 어설피지만 전위적인 문화적 실천이야말로 대학문화가 담당해야 할 임무이다”

이러한 문화환경의 변화는 하위·소수 문화적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소수문화적 실천이라 함은 지배와 주류 문화의 내외부를 횡단하고 파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 힙합·댄스 등 새로운 문화적 실천이 등장하는 것이 비슷한 예다. 그것들이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천을 어떻게 대학문화만의 흐름으로 끌어들이는 것인가에 고민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학문화의 정체성은 고정되고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흐름과 과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학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보다는 문제제기의 차원이 필요하다. 지배·주류문화에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을 창조하는 실험성과 끊임없이 재영토화하려는 것으로부터 탈주와 생성이야말로 대학문화의 역할이다. 완벽한 틀과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어설피지만 전위적인 문화적 실천이야말로 대학문화가 담당해야 할 임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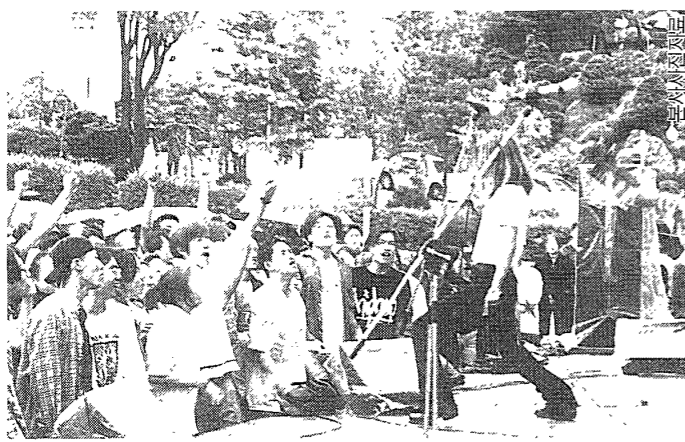
대응수는 방어를 넘어 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권경우
문화평론가/
서울문학이론연구소



실험정신만이 대학문화를 창출한다

“락은 저항이전에 자연주의” ... 동악내 새로운 문화지형 만든 목막골 락페스티벌



지난 대동제기간에 열린 목막골 락페스티벌은 학내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았다.

7. 80년대 대학문화는 저항성과 공동체성이 짙었다. 그러한 흐름은 사회·문화전반에 걸쳐 드러났으며 음악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저항정신으로 대변되는 락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90년대,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금 그시절 락이 지닌 저항성은 "그저 락이 좋아서"라는 예술성으로 승화했다. 락 역시 새로운 모습의 대학문화로 탈바꿈한다.

올해 목막골 대동제 기간에 있었던 본교의 '제3회 목막골 락페스티벌' 역시 10여개 밴드가 참가해 그 규모가 커지고 학생들의 호응도 높았다. 3년전 '목막골 락페스티벌'을 개최한 강중원씨(인도철학과 석사과정 수료). 우리에게 '강중원 밴드'로 알려져 있는 그는 90년대 락을 이렇게 말한다. "락은 저항이전에 자연주의예요. 인간적인 음악인 거요. 그리고 예술성이 없다면 어떠한 저항성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강중원 밴드는 순수목적 락콘서트에만 참가한다. 그에게서 과거와 같은 저항정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음악이 좋아서, 락이 좋아서-단지 그가 락을 하는 이유이다.

그는 개성이라는 이름아래 모두 똑같은 웃음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획일화'라 말한다. "기존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해야죠. 그리고 신속하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가운데 자연히 대학문화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며 이 '새로운 획일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시도와 야 한다. 락페스티벌 역시 그러한 다양한 대학문화 창출의 취지로 시작됐다.

목막골 락페스티벌은 학생 스스로 이끌어 간 독자적·자생적 행사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락페스티벌은 이제 우리 대학문화의 한 단면을 차지했으며, 행위주체인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준다. 요즈음 불교와 락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강중원씨는 "90년대 대학문화는 집단과 소수의 문제로 보지 말고 획일성과 다양성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다양한 대학문화는 학생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영) sadad@cakra.dongguk.ac.kr

메아리

노랑머리 2탄

▲요즘 비디오 대여순위 1위는 타이타닉의 관객동원기록을 깨고, 온국민에게 애국심을 조장한(?) 그 이름도 거창한 한국형 블록버스터 '쉬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카데미상 주요부분을 휩쓴 '세익스피어 인 러브'도 아니다. 바로 여배우의 선정적인 포즈와 그리고 '입막치고 보기가 해'라는 과격한 커피의 포스터가 인상적인 '노랑머리'가 요새 가장 잘 나가는 영화이다.

▲잘 알려져 있듯 '노랑머리'는 지난 봄 등급분류판정을 받고 수개월 동안 입소문으로만 돌던 영화이다. 그런 '노랑머리'가 빛을 보게 되었을 때 관객들은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라는 심정으로 영화를 찾았고, 비디오를 빌려갔다. 결론적으로 '별볼일 없는' 영화였던 '노랑머리'를 영화등급분류소위의 등급분류 결정이 '쉬리'를 대어전에서 쉬게 만든 것이다.

결국 영화등급분류소위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기를 쓰고 하는 청계거리 심보가 우리네 국민성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찍은 영화마다 절묘하고 심의의 가위질을 맞은 장선우 감독이 또 영화 '거짓말'로 영화등급분류소위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등급분류판정을 받고 영화필름이 아닌 신문 등에 실린 스틸사진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당하고' 있는 '거

짓말'은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 이후 12년만에 베니스 영화제 본선진출이라는 거짓말 같은 사실 때문에 더욱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다. 이 '거짓말'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화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보이는 관심은 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등급분류 판정영화'라는 낙인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결같이 등급분류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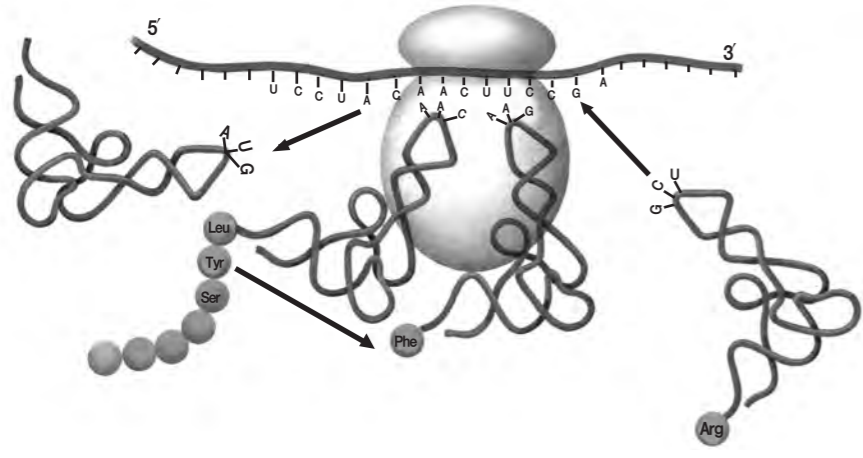
▲사회기강을 무너뜨리고 성적 아이덴티티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열다섯명의 위원들이 내린 등급분류판정. 그래, 열다섯명의 위원들이 영화전문가라고 치자. 그런데 우리 4천만 국민들이 언 그들에게 우리의 판단력을 재단하는 권리까지 맡겼는가.

김미경 편집장
pink@cakra.dongguk.ac.kr

기획시리즈

1. 생명공학이란
2. 유전자 조작식품

'조물주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된 인간들



세포안의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가 유전자의 최소단위로 변화하는 모습.

죽음을 앞둔 제갈공명은 "五十不稱夭(나이 50을 넘졌으면 요절이라 할 수 없다)"고 자위했고 공자는 70은 "古稀(드문 나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80세에도 왕성한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갑잔치는 대부분 쑥스러워한다. 96년 7월 5일 건강간 복제양 돌리가 세상에 나왔다. 역사상 최초로 인위적으로 복제된 고등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다. 모두 생명공학의 발달에 기인한 결과이다. 유전자조작을 통하여 생명체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생명공학은 실리온조작을 통한 디지털 혁명과 함께 급세기 최후의 신기술이자 21세기를 이끌어갈 혁신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디지털 혁명을 통한 전자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더 체감하고 있지만 생명공학의 잠재적 영향력과 그 충격을 경외하는 이유는 아마도 조물주의 영역으

로 간주되어 왔던 생명현상 그 자체에 대한 도전성 때문일 것이다.

윌슨·클릭의 이론 복제기술의 밑바탕

생명공학은 1953년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카번디시 연구소에서 생화학자인 제임스 왓슨과 물리학자인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두 젊은 과학자의 연구업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유전형질의 근원인 유전자(gene)를 구성하는 디옥시리보핵산(DNA)이 이중나선(double helix) 구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유전자의 구조가 풀림으로써 '이론'에 불과했던 다윈의 진화론을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급기야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공생명체'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DNA차원의 연구분야인 분자생물학은 6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여러 가지 생명현상의 신비를 풀었을 뿐 아니라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이라는 새 학문분야를 탄생시켰다. 유전공학이란 DNA를 조작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하나의 동물세포가 갖는 DNA는 보통 길이가 1미터 정도이다. 인간의 경우 여기에 약 10만개 정도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유전공학은 DNA의 특정한 구간 즉 유전자를 잘라내어 다른 생체내에 도입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1973년 미국의 코헨에 의하여 개발된 이 유전자재조합기술은 특정 개체의 유전자를 다른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에 삽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 유전자재조합기술로 대표되는 유전공학은 크게 보면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술"로 정의되는 생명공학의 일부로서, 유전자재조합기술(유전공학)을 포함한 세포융합기술(세포공학), 세포대량배양기술(세포배양공학), 바이오리액터기술(효소공학) 등이 생명공학의 핵심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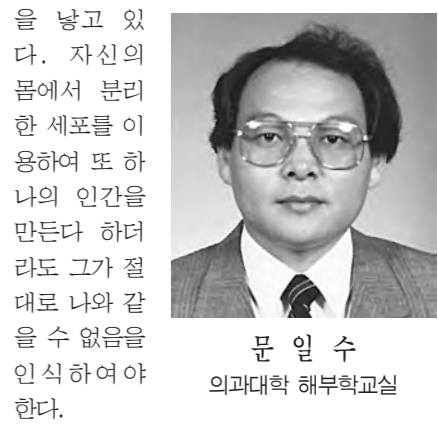
유전공학은 의학과 생물학을 발전시켜 인류복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동식물 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여 그 구조와 유전형질의 표현기전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단백질의 구조 및 생체 신호전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기초학문분야에서는 생명체의 발생, 분화, 노화, 학습과 기억을 포함한 행동, 발달, 면역 등의 현상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인슐린, 성장 호

르몬, 인터페론 등의약품, 산업용 효소, 무공해 살충제 등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농축산업 측면에서는 모유와 유사한 우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토마토, 농약이 필요 없는 농작물 등 바이오로 제 2의 녹색혁명을 맞고 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학분야에서는 질병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의 개발, 유전자진단, 유전자치료 등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세 부근에는 바이오테크 및 의료기술분야 벤처기업수가 2천5백여개, 종사자수만 21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가히 생명공학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38년부터 복제의 개념발생

생명공학은 마침내 동물을 복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동물복제의 개념은 이미 1938년 독일의 과학자 한스 스페만 박사가 제시하였다. 그후 실험적으로 수정란이 분할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의 핵을 난자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81년 쥐를 시작으로 양(86년), 토끼(88년), 소·돼지(89년)가 복제되었으며, 일란성 쌍둥이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제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생체가 된 개체의 몸에서 분리한 세포를 이용한 복제에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96년 복제양 돌리를 시작으로, 원숭이(97년), 젓소(98년)가 복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올해 초 한우의 복제에 성공하였다. 근래에는 미국의 리처드 시드 박사가 자기 자신을

복제하겠다고 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윤리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윤리적 문제는 언급을 피하고자 한다. 다만 과학적 측면에서 복제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다. 먼저 현재의 복제기술은 성장한 '개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세포핵'을 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방법은 세포핵을 제거한 난자에 복제할 동물의 핵을 주입하여 성장시키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세포핵 즉 유전자들의 복제이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유전자가 완벽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성격의 개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궁내 발생과 출생후 성장환경이 개체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고등동물과 인간에 있어 환경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완벽히 동일하지만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과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숙한다. 인격을 형성하는 뇌의 신경망은 유전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피카소를 복제하여 외형이 비슷한 또 한사람의 피카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복제 피카소가 화가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세포수준에서 완벽히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라는 복제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반쪽복제에 해당하는 자식



문 일수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유전공학의 발전 이면도 생각해

급세기발에 대두된 유전공학의 영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은 산업, 의학,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류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차세기 문명을 주도할 학문이다. 그러나 생명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속성 때문에 불교의 업(業)과 윤회사상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성숙한 남녀가 꾸민 가정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한다는 통념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에도 반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복제의 한계와 효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단지 유전자조작으로 생성될지도 모를 인공피플 엠엠오(Imo: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가 격정될 따름이다.

생명공학

인간의 이기를 위한 상업적 이용 차단해야

'신의 축복인가, 악마의 달콤한 유혹인가'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과연 어느선까지 허용될 것인가. 국내에서는 복제소(영통, 진이)에 이어 의약품 생산을 위해 복제한 염소(메디)와 송아지(보람)에 이르기까지 국내 생명공학이 많은 발전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97년초 영국 로슬린 연구소가 복제양 '돌리'를 만든이래 쥐, 원숭이, 소 등 각종 복제동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동물복제가 동물의 고통과 생존권은 무시한채 인간의 효용성과 상업적 가치에서만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아직 작다.

그 이유는 유전자 이식기술과 복제기술을 결합하면 인체에 유용한 의약품을 얼마든지 다량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인간의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 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복제

이전인 동물복제 수준에 이른 현재는 다른 종간의 장기이식의 거부반응이 최대 걸림돌이다.

거부반응은 사람의 면역체계(항체)가 이식된 장기 조직을 거부, 이식장기로 연결되는 혈관속의 피를 응고 시켜 결국 이식장기 파사를 초래하게 된다.

돼지의 유전자에다 사람의 DAF(괴사촉진인자)유전자를 결합시키면 돼지의 장기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DAF를 갖는다는 것이 이종장기이식의 핵심이다.

위 기술로 인해 정상적으로 오래 살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생명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종장기이식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을 전적으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비취볼 때 분명 피할 수 없는 분야일 것이다.

이에 제레미 라프킨은 '바이오 테크 시

대란' 저서에서 생명공학이 이야기할 암울한 미래를 섬뜩하게 표현하고 있다. 저자는 '노동의 종말'을 고하고 '첨단 신기술이 오히려 화이트칼라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분적이나마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실이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제레미 라프킨은 소수 세계적 기업, 정부가 인간의 설계도를 구성하는 10만여개의 유전자 특허를 소유하고 유전자 오염이 극심해지며, 능력분위 사회에서 유전자형에 따른 계급사회가 출현한다는 미래상을 설정해 놓고 있다.

유전공학의 역기능에 대해 경고한 제레미 라프킨의 미래설정은 분명 실현가능성 있는 얘기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한 생명공학회사는 복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파문이 일었고, 돌리를 탄생시킨 로슬린 연

구소도 미국의 제론사와 환자치료를 위한 인간복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상업적 목적이 생명공학과 얽혔을때의 결과이다. 인간의 미래 청사진은 인간의 자재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인간들과 오늘날의 생명공학자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제약회사 및 생명공학 회사들은 벌써부터 세계구석구석을 뒤지고 있다. 특이한 동식물의 유전자형을 미리 확보해 특허를 받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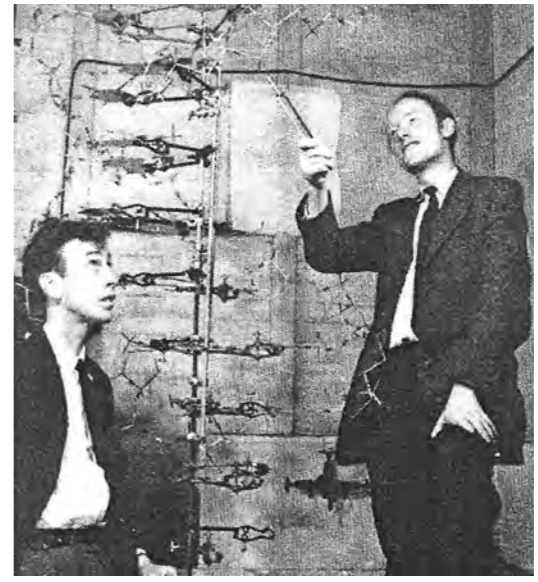
이미 GATT등을 통해 국제법적 준비까지 마쳤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토착민들이 조상대로 터득한 치료법을 '특허'란 이름으로 약탈하고 있어 분쟁도 일어 난바 있다. 또 생명공학자들은 단점이 없는 창조물을 찾으려는 창조주의 유혹에 빠져있다. 이와 더불어 염소와 양, 소와 돼지의 유전자를 섞는 실험까지 겹치다 보면 앞으로 지금의 생물 종의 구분도 무색해질 것이며, 생물의 정의와 존재의미까지도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무기로 쓰였을때의 결과는 언급할 필요

도 없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런 제안에 대한 우려 대신 잠미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 이같은 안이함은 미국 농무성이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예산 중 1%만 위험평가 분야에 쓰고 있는데서도 잘알 수 있다. 라프킨은 '천천히'와 '보수적 접

근'을 주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과 생물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선택의 여지를 열어놓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백양우 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DNA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왓슨과 크릭(오른쪽은 DNA 이중나선과 유전자의 모식도)



중 구

2002 월드컵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중구청은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자원봉사자를 연중 수시모집 한다. 모집 대상은 개인,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등으로 중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모집장구를 설치하여 접수를 받는다.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병원 등 일손돕기, 깨끗한 거리환경 만들기, 가로시설물 정비, 문화재 보호, 외국어통·번역 및 회화, 지역주민 여론조사 등의 지역사회개발활동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습지도, 간병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등의 재가봉사활동, 학교주변 폭력추방 및 유해업소 계도 등이다.

또한 중구청은 자원봉사 업무의 체계와 기반이 조성된 후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중 자원봉사센터팀을 구성하고 11월까지 자원봉사자 활용기관 전산망을 구축하며 모집, 홍보, 교육훈련, 정보관리 등을 할 예정이다. 문의 2260-1455

제1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모여라! 중구민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중구는 다음달 1일 구민의 날을 맞이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사이 6일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가족 걷기대회 등의 행사가 열린다.

특히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는 본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의 행사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유쾌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중구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다음달 1일 구민의날 기념식과 남산골 전통축제를 시작으로 △2일-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5일-우리집 및자랑 경연대회, 노인장기대회 △7일-어린이즐거기·그림그리기 대회, 주부 글짓기대회 △8일-장충단체 △10일-중구민 한

경 주

15일 상공회의소, 환경학술포럼 개최

오는 15일 제3회 경주 학술포럼이 상공회의소 4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상공회의소 4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보전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포럼은 경주 YMCA,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모색한다.

유재현박사(전 건설청 사무총장)를 시작으로 강우방 경주박물관장, 허권 UNESCO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임종환교수, 이대수 수

도권 쓰레기연대회 의장, 전재경 박사 등의 발제강연이 진행된다.

이에 각 주제강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재현=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강우방=경주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중요성 △허권=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유적지의 보존필요성 △임종환=건강과 다이어트 △이대수=한국의 환경분쟁 사례를 통해 본 시민의 참여 △전재경=다익신 규제와 법적·제도적 대응방향 등이다.

섬기는사람들 경주지회, 결식아동 돕기

12월까지 상담 및 지원...학습지원 결연사업추진

섬기는사람들 경주지회(회장=신영균)는 오는 12월 까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을 위해 결식아동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지회는 지난 7월부터 문화중학교 결식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개별상담, 집단 상담을 완료했으며 학습지원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학원 수강을 지원하고 아동결연을 개발, 경제적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결식아동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아동위기의 전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북공동모금회로부터 5백만원의 지원받아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프로그램, 건강강화프로그램,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결연사업으로 각각 진행된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추진

지

역

시



의 학 상 식

콘택트렌즈 연속 착용 절대 금물

소프트렌즈보다 하드렌즈가 부작용 훨씬 적어



정기하 본교 경주병원 안과 교수

Y.W

콘택트렌즈는 보통 고등학생때부터 착용하기 시작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여자인 경우는 미용적인 이유가 많고 남자인 경우는 스포츠와 같은 활동적인 생활에 제한을 받기 싫어서 렌즈를 착용한다. 콘택트렌즈는 크게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용자의 90% 이상이 소프트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하드 렌즈를 더 많이 착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안과 의사는 하드 렌즈를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드 렌즈의 부작용이 소프트 렌즈에 비하여 훨씬 적기 때문이다. 요즘 사용되는 하드 렌즈(RGP 렌즈)는 과거와 달리 산소 투과성이 뛰어나서 렌즈 부작용을 줄여주며 처음 착용시에 필요한 렌즈 적응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

더욱이 하드 렌즈를 착용하면 근시의 진행을 막아 준다고 주장하는 안과 논문이 많으며,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면 근시의 진행을 오히려 촉진한다는 주장이 많다.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쯤은 렌즈의 부작용인 각막염 때문에 눈이 충혈되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데 이것을 몇일정도 방치하면 각막궤양이 되어 심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소프트 렌즈의 부작용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하드 렌즈의 크기가 9 밀리미터(mm)이지만 소프트 렌즈의 크기는 14 밀리미터로써 정상적인 눈물에 의한 산소공급을 막아서 세균이 잘 자

라기 때문이다. 소프트 렌즈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렌즈의 부작용으로 안과 외래를 찾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드 렌즈를 착용할 것을 권하거나 라식(RASIK) 수술을 권하고 있다.

렌즈의 관리 요령은 렌즈 사용자들 스스로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고 각각 자기만의 관리 방식이었는데 한가지만 추가를 하고 싶다. 하드 렌즈나 소프트 렌즈 모두 연속착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도 되는 것으로 제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한 합병증이 생겨서 안과로 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예전에는 착용한 상태로 잠을 자도 그 다음날 괜찮았는데 오늘은 너무 눈이

아프고 불편하다." "경수와 같이 소독을 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 "렌즈를 새로 구입한지 몇 개월이 되지 않는데 벌써 렌즈의 수명이 다 되었는가?" 이 모든 이야기는 사용자가 렌즈 관리를 잘못하여 생긴 것일 수도 있으나 렌즈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속착용이 가능한 렌즈를 매일 저녁 일찍 제거하여 소독을 하는 것이 최상의 원칙이다. 특히 대학생활 중에서 가끔 있을 수 있는 단합대회, 합숙훈련, 오리엔테이션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환경이 틀리는 경우에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합병증이 잘 생기므로 조심하고 방심을 하지 않는 것이 눈의 건강을 위한 길이다.

모수길

김기영 (토목 4)

“처음 간 해외봉사활동 아쉬움 많아”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돼야

진정한 참사람으로 가는 길에 보탬되길 기대

“왜 공짜로 우리를 도와주느냐고 반문하는 중국의 상황과 현실을 모른 채 처음으로 중국에 봉사를 가게돼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 중에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김기영(토목 4)군.

군대 제대 후 복학 한 뒤부터 꾸준히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사회 봉사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온 그는 이번에 본교 참사람 해외봉사단 19명과 함께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4박 15일 동안 중국 요녕성 심양의 발해대학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참사람 봉사단이 활동한 발해 대학은 강의동 한동, 기숙사 한동만을 갖춘 순수 조선족 사립대이고 시설면에서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그는 우리 민족인 조선족이 다니는 대학인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래는 한국어교육, 태권도교육, 농업기술교육, 컴퓨터교육, 레크레이션, 노력봉사(농촌일손돕기)를 발해대 학생들과 같이 하려고 했지만 발해대 학생들이 교육대상(?)이 돼버려

한글과 컴퓨터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했다”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발해대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들에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조그만 싸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는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머지 않아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의 하늘 아래서 함께 손잡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며 그때의 흥분과 감동을 평생 가지고 살 것 이라고 다짐했다.

“두만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있을 수도 갈 수 없는 유일한 곳. 우리의 형제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다”는 김기영군에게 발해대 학생들과 같이 한 해외봉사 기간이 또 하나의 귀중한 경험과 추억이 되어 진정한 참사람으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되길 기대했다.

<규>

kjk10003@cakra.dongguk.ac.kr

발 선 대

“현재 학생들은 한글세대”

'교수실 명패 한글로' ...수요자 중심 사고 전환 필요

한컴타자연습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나의 사랑 한글날”이라는 수필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한글전용을 운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교내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교내 모든 교수연구실의 명패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까지 나는 그림같이 획이 많은 그 세 글자 앞에 서성이다 돌아가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보아왔다.

특히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더욱 많다. 이것은 한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흔히 ‘한글세대’, ‘한자세대’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한 자에 대해 약간의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남에게 물기를 꺼려하고 어쩌다 물어올 때는 겸연쩍게 뒷머리를 긁기도 한다. 이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들의 모습에서 이미 죽은 한자를 알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기성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리라.

사실 나는 그저 때문에 실수한 경험은 없지만 그 번잡한 세 글자를 보면 거리감이 느껴진다.

의사들은 항상 하얀 가운을 입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까만 양복에 금삿지를 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책상머리에는 항상 반짝이는 까만 바탕에 하얀 한자

명패가 놓여 있다. 이런 연상작용은 일종의 권위나 위압감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우리의 존경스러운 교수님들의 연구실 명패, 그 이름은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일지언정, 불행하게도 그것은 단지 표지판일 뿐이다. 표지판은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그 목적에는 권위나 위압이니 하는 따위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 도움을 주면 그뿐이다.

한자 인식력이 부족한 학생, 위업을 중시하는 교수님, 별 관심이 없는 학교 당국, 문제의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가?

생각컨대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다. 학교와 교수는 학생을 전제로 존재함으로써 마땅히 학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의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고쳐야 한다.

한글문패는 멀리서도 쉽게 구분이 될 뿐더러 복잡한 한자보다 친근감이 느껴진다. 교수와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교수실 앞에서 고개를 가우뚱 거리고 서성이다 돌아서는 일을 계속 방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수의 권위와 위엄은 자질과 인성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지 자기인성에 사로잡힌 한자이를 표기는 학생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며 나아가 한글전용이라는 민족적 대명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학교와 교수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손윤미(인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유학생에게 듣다

이숙령 (인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3)

한국학생의 첫인상, ‘친해질수록 정에 약하다’

한국어 배우기 힘들나 공부할수록 재미 있어...

“저는 한국어 잘 못해요”라는 첫마디와 함께 두손에 꼭 쥐고 있던 음료수를 건네 주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호기심에 가득찬 눈빛과 수수한 옷차림은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였다. 중어중문학과 3학년 재학생인 그녀의 이름은 '이숙령'. 그녀가 본교에 들어온지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다.

“처음에 얼마나 떨리고 어색하던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지난 학기까지 그녀는 우리학교와 자매결연한 대만중문문화대학교 한국어과의 학생이였다.

어렸을때부터 어문계열에 흥미를 느꼈던 그녀는 “그냥 한국어가 좋더라고요. 재미있어요.”라고 대답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을 이어 갔다.

“하지만 어려움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문법들이 너무 어려워요. 발성도 마찬가지예요.”라며 한국어 공부의 힘든점을 토로했

다. “친구에게 들었는데 동국대가 위치한 경주가 한국의 역사적 고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해 관광도 많이 다녀볼까 생각중이에요.”라며 이미 실례는 듯 약간 흥분한것처럼 보였다. “동국대와 모국에서 다녔던 학교의 모습은 차이점도 있지만 비슷한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 그런 모습을 볼때면 모국땅의 친구들이 생각나요. 물론 부모님도 생각나구요.” 부모님을 생각하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휴식시간엔 친구들과 음료수를 마시던지 공부를 해요. 한국친구들 아주 많아요.” 언어는 달라도 같은 또래친구들 간에는 뜻이 통하는 모양이었다. “처음에 학생들을 접하면서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느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연민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절로 친해졌죠. 동국대 학생들은 정에 약한기봐요.”라며 미소를 지어냈다. “수업은 학생들과 교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배려해 주셔서 잘 참여하고 있어요. 가끔 교수님이 말을 빨리 하셔서 못 알아 들을때도 있었어요.”라며 수업의 어려움도 말했다. 그리고 “그럴때 주위에서 다

시하면 말해 주거나 필기를 보여주곤 해요. 하지만 교수님이 좀더 천천히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하는 바람을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1년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할꺼예요.”라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선생님이 되게 저의 바람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거 보람있잖아요.”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녀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어 본다.

<현>

dy19910491@mail.dongguk.ac.kr



머나먼 여정...

경주캠 정각원으로 이어지는 본관건립 예정부지인 소문동장이 청동기 시대 유적 발굴작업때문에 학생들과 외부 예술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여론부

소나기

아직도 휴강



△하영아, 희경아! 이제 강의 들어야지?
△이런 신성한(?) 공간에 나서려 하지합
시다. 특히 학번 19910489 학생
요주인물... -All F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휴강해서 좋다. -99
△동규아(행정3) 공부 열심히 해라.
△나는 아직도 지난 학기에 한 휴강
을 알고있다!
(I still know what you~last semester!)
-from 왕왕따
△공부하기 싫은데 잘됐다.
△이번 학기가 처음은 아니다. 마지막도
아니다.
△좋다.
△난 학교에 안나와도 A+이다.
(대출, 대리시험...)
△아직도 휴강??
△도서관은 특별 방학? 개강한지가
언젠데...
△수강정정기간은 수업료 면제?
△시간표는 품인가...
△학교요기가 무섭다! 역시 오늘도
수업은 없었다...
△나나 내나 뻥이 아는데, 개강후
1~2주는 휴강이라는걸.
△고딩 때... 방학때도 학교가던 악몽같은
시절이 있었지. 난 좋다. 디따 좋다.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정작 휴강을
원하는건 우리 학생들이 아니던가!
△수강정정때 휴강? 좋다 이거야. 근데
그 기간동안 1, 2백명씩 듣는 수업에 대
한 대책은 왜 안채워지는 거야?
△아직도 휴강하는 맘 좋은 교수님은
누구래요? 그 이름을 듣고자~
△각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겠지.
교수로서, 학생으로서...
△수강신청 정정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겠지... 아님 교수님의 변덕인가?
△EC 편히 나왔자녀. (오늘 수업 1개) 오늘
비오는 날...

BK21, 대학의 서열화 조장할 뿐

“본교 교수들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 해야”

여름방학을 전후해서 대학가에는 구조 조정, 대학개혁이라는 말이 이어, 마치 전자제품 이름으로 어울릴 법한 단어가 유행중이다.

바로 BK21, Brain Korea21의 줄임 표기 이면서 일단의 학생들, 교수들에 의해 바보 코리아라 비꼬아지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BK21은 철저한 시장주의적 대학개편 전략 아래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김대중 정부의 탈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고등교육정책이라는 한 분야로 한정되어 추진된 것이다. 소수의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과 다수의 학부 중심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말 그대로 몇몇 거대한 재벌대학-대학원을 남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취업 양성소로 만들겠다는 섣불리한 계획은 불행히도 그 발표 이전부터 착실히 준비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의 무난한 학부제의 옹호와 몇몇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친 개혁적인 사업들의 발표는 거부되지조차 않을 것인가 하는 일말의 걱정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니 말이다.

허나 놀랍게도 이 땅의 교수님들이 4.19라는 역사적인 혁명의 시기이후 처음으로 투쟁을 조직해 BK21의 기만성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몇몇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혹자는 교수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밤그릇 쟁기'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분들의 의도와는 무관한 "왜 우리학교에서는 이런 교수님들이 없는가?"라는 것을 문제삼고 싶다. 물론 '교수'라는 전문직업으로 현실운동에 올곧게 투신하는 분이 몇 분 없지만, 이것은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한 수준에서 다 같이 동참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BK21사업 대상학교 선정이 교수님들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끝났다. 문제는 지금 부터이다.

결과를 놓고 다시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학교의 교수님도 그 움직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상섭(경주캠 총학생회장)

학생들의 복지위해 '보리수' 남아야

동약의 1만2천 학우들은 혹시 아는지 모르겠다. 보리수가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말이다.

보리수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다함관의 매점 겸 휴식 공간이다. 보리수가 없어진다는 것은 당장 우리가 사탕 하나, 우유 하나를 먹기 위해 힘겹게 언덕을 올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간 시간에 편하게 앉아 좋은 음악을 들으며 차 한잔 할 공간, 친구와 여담을 즐기며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최소한의 복지 공간조차 1만2천 학우들이 다니는 동국대에 확보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동국인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도대체 학교측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구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동국인이려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한 것이 뭔지 생각해 보고 그 뜻을 분명히 학교측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진숙 (사범대 국어교육과)

개강초 설사·복통 주의해야

여름은 더워야 하고 겨울은 추워야 한다. '올해 여름은 무지 더웠어'라고 한다면 그해는 풍년인 것이다.

그런데 99년 올해 여름은 거의 비와 함께 한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태풍이 지나면 장마가 오고 그리고 또 태풍, 계속되는 비로 인해 풍년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자취생들의 입에선 빨래 말리기가 힘들다고, 섬유 린스를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이다.

계다가 개강 2주가 접어들면서 보건소는 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줄을 이었다.

그들은 대개가 어패류를 먹었다든지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었다고 말을 한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돼지고기, 닭고기 속에는 살모넬라균(잠복기:7~72시간)이, 어패류 속에는 비브리오균(잠복기:15~24시간)이 서식한다. 이것들은 끓

여도 식으면 다시 번식하기 때문에 끓여서 바로 먹는 것이 좋으며, 신선한 재료로 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는 것도 물론 좋지 않다. 개강을 빙자하여 음식점과 술집을 찾는 학생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황영란 보건시간조사



여름가고 가을오고 ...

여름내내 드는 창공을 향해 시위하던 분수는 이제 조용히 멀어져 간다. 분수의 아쉬움을 음미할 여유도 없이, 핸드폰 통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연민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촬영=송광수 동문

도서관 양심을 찾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동대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대로 우선 중앙도서관에 기생하고 있는 좀도둑을 잡았더니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다른 곳에서 기생하고 있는지 모를 다른 좀도둑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니다.

저도 물론 저의 소지품관리 부실이었지만, 지난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동국관 도서관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빈자리에 돈과, 버스카드, 전철패스 등만 속 가져가버린 빈자림만 남아있더군요. 혹시 이번에 잡은 도둑이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군요.

정말로 우리 학교의 수치인 좀도둑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망봉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수인 (freecine@hanmail.net)

모니터링

제 1277호 동대신문을 읽고

연재소설 새로운 시도...구체적인 글 전개 필요

BK21기사 중복된 내용 너무 많다

동대신문 6면에 '계론의 필름'이라는 연재소설은 내용을 떠나 새로운 시도란 점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현 시대까지의 정치역사와 지금의 타락된 모습을 서술하는 것은 알겠으나 첫회의 내용으로는 작가의 의도를 잘 알수가 없었다. 2편에서는 독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글을 전개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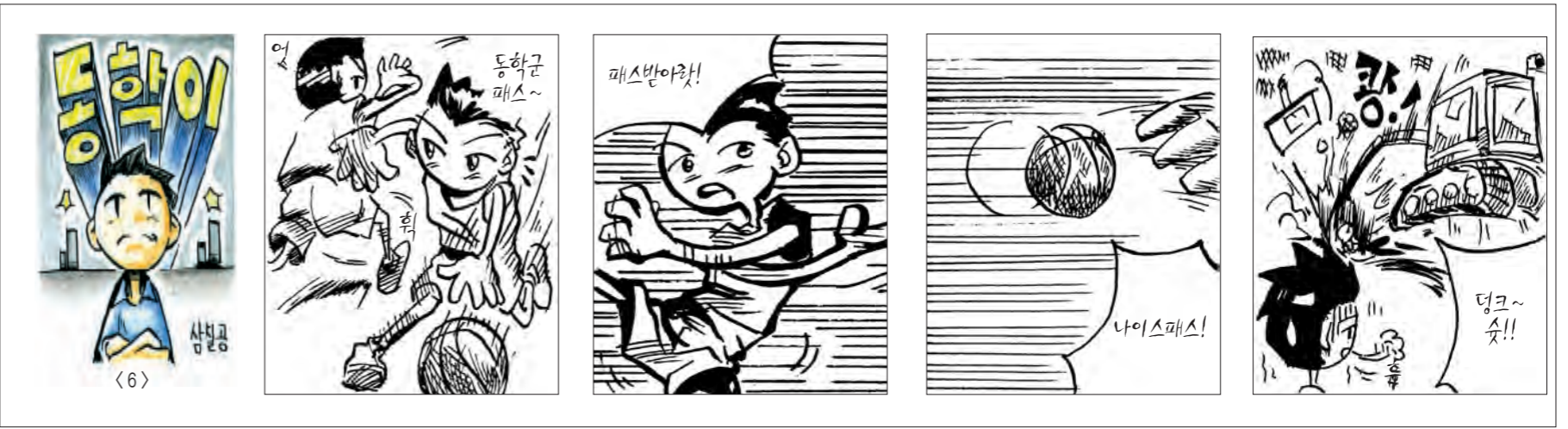
한편 동대신문 1면, 서울보도(2면), 5면의 사실에 공통적으로 지면화된 내용이 BK21에 관한 기사들이다. BK21의 내용이라면 웬만한 내용은 학우들이 알고 있다. 무엇보다 별다른 내용차이 없이 8면이라는 지면속에 3번이나 나왔다는 것

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하다. 그리고 뷰파인더동국이라는 칼럼은 사진내용에 비해 너무 큰 것 같다. 이 칼럼은 그 크기를 줄였으면 하고, 사진글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지 너무 미화하는 듯 하다.

또한 기성언론을 비판하는 언론 비평의 경우 현대그룹 산하의 문화일보의 기사내용을 주가조작과 관련해 잘 비판한 기사였다고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신뢰성있는 언론 비평기관이나 교수가 글을 썼다면 사안의 비판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김태숙(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K편집장님의 22번째 생일을 하늘땅 별 땅 만큼 축하드려요. 신문사 식구들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도 ♥해요~

-DG PRESS 일동
△日文 '99 효선아! 해피버스~! 사랑해~ △단결영문 '못가지 한미선' 부과대 당선! very, very 추가!!

△병훈아, 정수아, 정현아! 생일축하해. 경릉 98 최고!! -태수
△재익이생! 생일 축하해여.

-Richard & Kristy & Charles
△한외대 本3, 장진영양과 김하군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흑흑~ 진영아~

-본드일동
△지원아! LG애드 입상 축하한다.

-NEO-AD
△정치외교학과 '93김경훈 오빠, 생일축하해요. -이쁜이 3자매

△기만형! 생일축하해요~ 2:2 한게임! -97경영 압삽이 M.S/ 미오
△공대·정산대 풍물패 '한소리' 제1회 정기공연을 자축합니다!! -52
△줄리아, 생일 축하한다. 내일은 다 잘 될꺼야.

-with true Roman

열심히 합니다

△기영오빠! 섬공부 열심히 하시고, 19일 섬 잘 보세요. -실
△국제법학회 세미나 준비 힘들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인상 남깁시다. 파이팅! 으라차.
△형사모의재판이 9월14일에 열립니다. 많이 오셔서 지켜봐 주세요. 형사법학회 Fighting!!

그리고...

△누가 0.5교시, 1.5교시 하자고 한거예요! 옛날 1시간, 2시간 하던때가 그리습니다. 핵! 80분동안 한번도 안하고 수업 하더라니깐요. -ㅠ. ㅠ

은방글

축하합니다

△우리모두 영문과의 왕왕따 이주영의 버써데이(9월 23일) 축하합니다. -그위의 왕따
△9월 13일 짝꿍이와 사오정의 650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말로만 말고...) -생환팀 화이팅
△9월 15일 준규와 명숙이의 300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태목아! 카페연거 축하한다. 그러구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수 있도록 빌게. -카페회원 일동
△내일은 화랑선무부 진찬이 생일입니다. (9월 9일) 꼭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김덕년(경영2) 너의 새출발을 축하한다.

열심히 합니다

△설희, 하영, 희경, 미진, 영희, 선경, 새 학기 맞아 지금만큼만 노력해! -웁넌이가

△불교학과 범우님들 열심히 정진합니다. -'96
△불교 99 모두 힘내자. -도희
△마지막 남은 한학기를 위해 열심히 하자. -체육인

그리고...

△선산, 수택, 세준, 석영이형 지난기사 미안해유. 반말 이제그만. -생환팀 화이팅
△불교 '96, 금세기 마지막 학기 잘지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불교96 불강당 무수리
△금불회 회원님을 낚마다 좋은날 피소서. -금불회장
△To. 동국대 서울캠 법학과 1학년 김지영! 지영아 잘 지내니? 너 그렇게 서울 올라가 버리고 연락도 못했다. 미안해 조만간 내가 연락할게. 잘지내. -경주에서 예진이가
△문정아 좀 빼지 마라. -내
△한외예과 '99 총무입니다. 돈 잘 내시구요. 제가 좀 빠신거 아니죠? 동국한의 '99 Fighting'. -천사 효정샘

TEL: 22603491·2
(0561)7702058
FAX: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PC ID: 동대신문
천리안 PC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생선가스(1300)
화	닭도리탕(1500)
수	제육볶음(1500)
목	햄볶음밥(1300)
금	회덮밥(1500)
	카레라이스(1300)
	양송이볶음밥(1300)
	치킨가스(1500)
	튀김덮밥(1300)
	스파게티스(15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김치볶음밥(1300)	잡채술밥(3000)
화	모듬꼬치우동(1500)	낙지볶음(3500)
수	후라이드치킨(1500)	소골국(3300)
목	하이라이스(1300)	열무비빔밥(3000)
금	오징어채볶음(1500)	동태매운탕(3300)
	생이채비빔밥(1300)	비후가스(3800)
	제육역갈비(1500)	아채전골(3300)
	후랑크볶음밥(1300)	죽밥(3500)
	순살돈가스(1500)	콩비지찌개(3300)
	비지리수제비국(1300)	갈치구이백반(3300)

(단위: 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근대국(1300) 쇠고기무국(1300)
화	햄이채볶음밥(1600) 전주비빔밥(1800)
수	두부우영국(1300) 견세우아육국(1300)
목	오징어덮밥(1600) 스파게티/육수수(1800)
금	게맛살연두부탕(1300) 속풀이국밥(1300)
토	잡채덮밥(1800) 김치볶음밥(1600)
일	숙음배추국(1300) 민두국(1300)
	돈까스(1500) 돈육덮밥(1600)
	복아채국(1300) 어묵무국(1300)
	곰탕(1800) 카레라이스(1500)
	시래기해장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무채국(1300)
	하이라이스(1500)

(단위: 원)